2학년 · 중간고사 대비

부산외고 2학년 중간고사 비문학, 문학 요약 자료

PART 1 비문학 10지문 · PART 2 문학 11세트 20작품

PART 1

비문학

평가원 기출 10지문
핵심 한 줄 · 지문 요약 · 핵심 개념 정리 · 한눈에 비교

PART 2

문학

11세트 20작품 (고전시가 · 현대시 · 현대소설 · 고전소설)
작품 해제 · 작품 분석 · 감상 포인트 · 작품 비교

목차

PART 1 비문학 3

01	2023 수능	기술/과학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	3
02	2024 6월 모평	사회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	5
03	2024 6월 모평	기술	고체 촉매의 구성 요소	7
04	2024 6월 모평	인문	몸과 의식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	9
05	2024 9월 모평	사회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이동권	11
06	2024 9월 모평	과학·기술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와 응용	13
07	2024 9월 모평	인문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	15
08	2024 수능	사회	경마식 보도의 특성과 보완 방안	17
09	2024 수능	기술	데이터에서 결측치와 이상치의 처리방법	19
10	2024 수능	인문	노자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	21

PART 2 문학 23

01	고전시가·수필	**한거십팔곡** 권호문 · **기취서행** 김낙행	23
02	고전시가	**관동별곡** 정철	26
03	고전시가	**흥망이 유수하니~** 원천석 · **국화야 너는 어이~** 이정보 · **동짓달 기나긴 밤을~** 황진이	28
04	고전시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작자 미상 · **어이 못 오던다~** 작자 미상 · **한숨아 세한숨아~** 작자 미상	32
05	현대시	**맹세** 조지훈 · **봄** 오규원	36
06	현대시	**동물원의 오후** 조지훈 ·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김현승	39
07	현대시	**성에꽃** 최두석 · **귀뚜라미** 나희덕	42
08	현대소설	**무성격자** 최명익	45
09	현대소설	**폐어인** 최명익	47
10	고전소설	**상사동기** 작자 미상	49
11	고전소설	**금령전** 작자 미상 · **심청전** 작자 미상	51

01 기술/과학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

핵심 한 줄

기초 대사량은 직접법·간접법으로 구하며, 19세기 초기 연구는 발산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하므로 기초 대사량이 (체중)$^{0.67}$에 비례한다고 봄. 클라이버는 상용로그를 취한 L-그래프와 최소 제곱법으로 최적 직선의 기울기 0.75를 얻어, 기초 대사량이 대사 체중인 (체중)$^{0.75}$에 비례한다는 클라이버의 법칙을 제시함.

기초 대사량 # 직접법·간접법 # 증가율 # L-그래프 # 상대 성장 # 최소 제곱법 # 클라이버의 법칙(대사 체중)

지문 요약

1문단 **대사량**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으로,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양을 구하는 기준임.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됨. 이때 체내 생성 열량 =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며,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75%**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함.

2문단 기초 대사량은 두 방법으로 구함. ㉠**직접법**: 온도가 일정하고 공기 출입량을 아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로 직접 측정함. ㉡**간접법**: 호흡 측정 장치로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 생성 열량을 **추정**함.

3문단 19세기 초기 연구는 체외 발산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항상 일정한 비를 가짐) 봄. 체표 면적 ∝ (체중)$^{0.67}$이므로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0.67}$**에 비례한다고 함. **증가율** = 증가 후 값 ÷ 증가 전 값이므로, 체중이 W→2W가 되면 체중 증가율은 2, 기초 대사량 증가율은 $2^{0.67}$, 즉 약 **1.6**이 됨.

4문단 1930년대 **클라이버**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 동물의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함. 가로축에 **체중**, 세로축에 **기초 대사량**을 두고 동물별 (체중, 기초 대사량)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냄.

5문단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르면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점들은 직선이 아닌 **곡선** 주변에 분포함(증가율이 같을 때와 다름). 순서쌍 값에 **상용로그**를 취해 표시한 **L-그래프**(X: 체중의 로그값, Y: 기초 대사량의 로그값)에서는 점들이 **직선** 주변에 분포하므로, 그 직선의 **기울기**로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음.

6문단 체중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 증가율이 작으면 L-그래프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음**. 기초 대사량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짐**. 두 증가율이 같다면 기울기는 **1**이 됨.

7문단 L-그래프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면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함. 예) 동일 종에서 **심장·두뇌**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름.

8문단 **최소 제곱법**: 그래프에서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는 방법. ①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림 → ② 각 점에서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댓값을 제곱해 모두 합함(**편차 제곱 합**) → ③ 편차 제곱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함.

9문단 클라이버는 이 방법에 근거해 L-그래프의 최적 직선 기울기로 **0.75**를 얻고, 동물의 기초 대사량이 **(체중)$^{0.75}$**에 비례한다고 결론지음(**클라이버의 법칙**). (체중)$^{0.75}$를 **대사 체중**이라 부름. 대사 체중은 **치료제 허용량** 결정에도 이용되어 허용량을 대사 체중에 비례해 정하는데,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임.

핵심 개념 정리

기초 대사량

쾌적한 온도·편히 쉼·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 일정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대사량의 60~75%로 가장 큰 비중,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함.

증가율

증가 후 값 ÷ 증가 전 값(차이가 아니라 비율). 체중 W→2W이면 증가율 2, $(\text{체중})^{0.67}$에 비례하는 값의 증가율은 $2^{0.67}\approx1.6$임.

L-그래프

체중(X)·기초 대사량(Y)에 상용로그를 취해 그린 그래프. 증가율이 달라도 점들이 직선 주변에 분포하며, 기울기 = 1이면 두 증가율이 같고, 1보다 작으면 세로축 변수의 증가율이 더 작음.

상대 성장

L-그래프 방식에서 생물의 형질이 체중·몸 크기와 직선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것. 예: 심장·두뇌 크기.

최소 제곱법

점에서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편차를 제곱해 합한 '편차 제곱 합'이 최소인 직선을 최적의 직선으로 삼음. 기울기와 절편을 구할 수 있음. 점이 직선에서 멀수록 편차 제곱 합은 커짐.

클라이버의 법칙·대사 체중

L-그래프 최적 직선의 기울기 0.75 → 기초 대사량 ∝ $(\text{체중})^{0.75}$(대사 체중). 치료제 허용량도 체중이 아닌 대사 체중에 비례하여 정함.

한눈에 비교

구분	19세기 초기 연구	클라이버(1930년대)
기초 대사량의 비례 대상	체표 면적 ∝ $(\text{체중})^{0.67}$	대사 체중 = $(\text{체중})^{0.75}$
근거	발산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봄	L-그래프 최적 직선(최소 제곱법)의 기울기 0.75
체중 2배일 때 기초 대사량	$2^{0.67}$ ≈ 1.6배	$2^{0.75}$ 배(초기 연구보다 큼)
공통점	**체중의 증가율 >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	

02 사회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

핵심 한 줄

공포 소구 연구는 중간 수준의 공포 소구가 설득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본 재니스에서, 감정적 반응(공포 통제)과 인지적 반응(위험 통제)을 구분한 레벤달로 진척됨. 이를 종합한 위티는 위협과 효능감을 두 요인으로 설정하고, 두 요인 수준의 조합에 따라 위험 통제 반응·공포 통제 반응·무반응이 나타난다는 결론으로 기존 이론을 통합함.

공포 소구 # 재니스 # 레벤달 # 공포 통제 반응 # 위험 통제 반응 # 위티 # 위협·효능감

지문 요약

1문단

공포 소구는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의 **해로운 결과를 강조**하여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으로, 1950년대 초부터 설득 전략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됨. 초기 연구를 대표하는 **재니스**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에 주목함. 수용자에게 공포 소구를 **세 가지 수준**으로 달리 제시하는 실험을 한 결과, **중간 수준**의 공포 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함. 즉 공포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수준보다 **적당한 공포**가 수용자를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 초기 연구의 결론임.

2문단

공포 소구 연구를 진척시킨 **레벤달**은 재니스의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하며, 공포 소구의 효과는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고 봄. 즉 레벤달은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모두 고려하여 공포 소구의 효과를 설명함. 감정적 반응 = **공포 통제 반응**, 인지적 반응 = **위험 통제 반응**으로 명명함.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 수용자는 권고를 따르지만,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오히려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임(권고 불이행). 따라서 레벤달에 따르면 공포 소구가 설득 효과를 내려면 공포 통제 반응이 아니라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함.

3문단 (두 요인)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위티**는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함.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위협의 수준이 높음. 권고를 이행하면 **자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자신에게 **권고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 효능감의 수준이 높음. 즉 위협은 위험의 개인 관련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고, 효능감은 권고의 예방 효과와 자신의 이행 능력에 대한 인식으로, 두 요인의 수준은 각각 따로 판단됨.

3문단 (사례)

동호회가 '모임에 꼭 참석해 주세요. 불참 시 회원 자격이 사라집니다.'라는 **안내문**을 보낸 경우를 예로 듦. 회원 자격 상실은 동호회 활동에 **강한 애착**을 가진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됨. 또한 그가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느낄 때, 안내문의 권고는 그에게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줌. 이처럼 같은 안내문이라도 수용자가 위험을 자신의 일로 크게 느끼는지, 권고를 이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정해짐. 위협과 효능감이 모두 높은 이 회원에게는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 모임에 참석하게 될 것임.

4문단

위티는 두 요인을 레벤달의 두 통제 반응과 관련지어 결론을 도출함. 위협↑·효능감↑ → **위험 통제 반응** 작동, 위협↑·효능감↓ → **공포 통제 반응** 작동. 위협↓ → 수용자는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 **효능감의 수준에 관계없이** 공포 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음**. 이 결론은 그간의 공포 소구 이론을 **통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됨. 즉 수용자가 권고를 따르게 하려면 위협과 효능감을 모두 높게 느끼게 해야 함. 곧 재니스의 감정 중심 연구와 레벤달의 두 통제 반응을 위티가 두 요인으로 종합하며 공포 소구 연구가 진척된 것임.

핵심 개념 정리

공포 소구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의 해로운 결과를 강조하여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

재니스의 실험

공포 소구를 세 수준으로 달리 제시 → 중간 수준이 설득 효과 최대.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음.

레벤달의 두 통제 반응

공포 통제 반응(감정적) = 두려움을 통제하려 위험을 무시함 → 권고 불이행 / 위험 통제 반응(인지적) = 권고를 따름.

위티의 두 요인

위협(위험의 개인 관련성+심각성 인식)과 효능감(권고의 예방 효과+자신의 이행 능력 인식). 두 요인은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됨.

위티의 2×2 결론

위협 높음+효능감 높음 → 위험 통제 반응 / 위협 높음+효능감 낮음 → 공포 통제 반응 / 위협 낮음 → 효능감과 무관하게 무반응.

한눈에 비교

위협 수준	효능감 수준	작동하는 반응	결과
높음	높음	위험 통제 반응(인지적)	권고를 따름
높음	낮음	공포 통제 반응(감정적)	위험을 무시하려 함
낮음	높음/낮음 무관	반응 없음	위협이 자신에게 영향 없다고 느낌

03 기술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체 촉매의 구성 요소

핵심 한 줄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해 반응 속도를 바꾸며, 화학 산업에서는 생성물 분리 공정이 필요 없는 고체 촉매를 주로 씀. 고체 촉매는 반응물을 적절한 세기로 흡착해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활성 성분(필수), 소결을 억제하는 지지체, 소결 억제·흡착 세기 조절로 활성을 조절하는 증진제로 구성됨.

활성화 에너지 # 촉매 활성 # 활성 성분 # 흡착 세기 # 소결 # 지지체 # 증진제

지문 요약

1문단 **활성화 에너지**는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임.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그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가 많아 반응이 빠름.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로, 촉매가 없을 때와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하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이라 함. 즉 촉매는 반응 경로를 바꿈으로써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함. 화학 산업에서는 액체·기체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 공정이 필요 없는 **고체 촉매**를 주로 이용하며, 이는 대부분 활성 성분·지지체·증진제로 구성됨.

2문단 (흡착 과정) **활성 성분**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임.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은 반응물의 **화학 흡착** →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 → 생성물의 **탈착** 과정을 거쳐 완결됨. 즉 반응물이 표면에 붙어야 반응이 시작되고, 생성물이 떨어져 나가야 반응이 끝남. **금속**은 다양한 물질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쓰임. 예: 암모니아 합성 시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며,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가 철 표면에 흡착되어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됨. 이처럼 활성 성분 표면에서의 흡착이 촉매 작용의 출발점이 됨.

2문단 (흡착 세기)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하여 안정화되며,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흡착 세기는 적절해야** 함: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 촉매 활성이 낮고, 너무 강하면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표면 반응이 느려지므로 촉매 활성이 낮음. 일반적으로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짐. 흡착이 약해도, 너무 강해도 활성이 낮으므로 흡착 세기와 촉매 활성은 단순히 비례하지 않음. 즉 촉매 활성을 높이려면 흡착 세기가 적절한 금속을 고르고 표면에 드러난 활성 성분 원자를 많게 해야 함.

3문단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 고온에서 금속 원자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는 **소결**이 일어남.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이 줄어듦**.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줄어드는 셈이므로 촉매 활성이 낮아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지체**로,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됨.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쓰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있음. 즉 지지체는 활성 성분의 **표면적 감소를 막는** 역할을 함.

4문단 **증진제**는 촉매에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절함.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함. 지지체처럼 소결을 억제할 수 있으나, 분산이 아닌 표면 구조 변화를 통한다는 점에서 방식이 다름. 고체 촉매에 **활성 성분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진제나 지지체는 포함하지 않기도 함. 정리하면 활성 성분은 흡착을 통해 촉매 활성을 제공하고, 지지체는 분산을 통해 소결을 억제하며, 증진제는 소결 억제와 흡착 세기 조절로 활성을 조절함.

핵심 개념 정리

촉매·촉매 활성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 반응 속도를 바꾸는 물질(새로운 반응 경로 제공). 촉매 활성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 →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할수록 활성 높음.

고체 촉매의 장점

액체·기체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 공정이 필요 없음.

흡착 세기와 촉매 활성

흡착 세기와 촉매 활성은 비례하지 않음. 적절한 세기에서 활성 최대(산 모양 그래프), 너무 약하면 흡착량 부족, 너무 강하면 과도한 안정화로 반응 지연.

소결과 지지체

소결 = 고온에서 금속 작은 입자들이 뭉쳐 큰 입자가 됨 → 표면적 감소 → 활성 저하. 지지체(넓은 표면적·높은 열적 안정성)에 분산하면 억제.

증진제

소량 포함. ① 표면 구조 변화 → 소결 억제 ② 전자 밀도 변화 → 흡착 세기 조절.

구성 요소의 필수 여부

활성 성분만 필수, 지지체·증진제는 경우에 따라 없음.

한눈에 비교

구성 요소	역할	작동 방식	필수 여부	<보기>(7번) 대응
활성 성분	촉매 활성 제공	표면에 반응물 흡착 → 반응 → 생성물 탈착	필수	팔라듐
지지체	소결로 인한 활성 저하 억제	넓은 표면적·높은 열적 안정성의 표면에 금속 입자 분산	선택	실리카
증진제	활성 조절	표면 구조 변화(소결 억제) / 전자 밀도 변화(흡착 세기 조절)	선택	규소(소결 억제), 은(흡착 세기 조절)

04 인문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몸과 의식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

핵심 한 줄

(가)는 동일론·기능주의와 설의 반박이 모두 의식 논의를 몸 내부로 한정했다고 보고, 파생적 상태를 조작해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몸 바깥으로 확장된다는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을 설명함. (나)는 주체·대상 분리를 전제한 객관주의 철학을 비판하며 지각을 주체·대상 분리 이전 얽힘의 체험, 즉 내 몸의 체험으로 봄.

동일론 # 기능주의(함수적 역할) # 중국어 방 # 확장 인지 이론 # 심적 상태 / 파생적 상태 # 객관주의 철학 # 얽힘의 체험

지문 요약

(가) 1문단 **동일론**: 의식은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함. **기능주의**: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음. 기능 = 입력에 대해 특정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이며,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출력 쌍의 일치를 뜻함. 실리콘 칩 로봇이 찔림에 고통을 출력하면 우리와 같은 의식을 가짐 →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은 중요하지 않음**. 반면 동일론은 의식을 뇌의 물질적 상태와 같다고 보므로 뇌가 없으면 의식도 없다고 볼 것임.

(가) 2문단 **설**은 **중국어 방** 사고 실험으로 기능주의를 반박함.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중국어 입력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 출력을 내놓으면,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은 같지만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님 →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음. 따라서 함수적 역할이 일치한다고 해서 의식이 같다고 볼 수 없음.

(가) 3문단 동일론·기능주의·설은 모두 의식 논의를 **몸의 내부로만 한정**함. 그러나 의식의 하나인 **인지**(무언가를 알게 됨)는 **몸 바깥**의 일과 맞물려 벌어짐. 예: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 파일을 열람해 확인함 → 이를 설명하는 것이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으로, 인지가 몸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바깥의 일과 맞물려 이루어짐을 설명함.

(가) 4문단 (개념) 인지 과정 = 주체에게 **심적 상태**(기억·믿음)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냄.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이나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냄. 노트북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파생적 상태이며, 열람 후에도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지만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남. 즉 노트북 정보 자체는 그 자체로 심적 상태가 아님.

(가) 4문단 (확장)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여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임.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은 심적 상태가 아니라 **인지 과정**임. 확장된 인지 과정은 환경 변화를 탐지하고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될 때만 성립(주체 없는 인지 불가). 의식 문제를 몸 바깥으로 넓혀 설명한 의의가 있음.

(나) 1문단 **지각** =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 지각 분석 시 두 사실에 직면함: 사물과 내 몸은 **물질세계**에 있고,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다른 세계**에 있음.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다른 세계에 속함. 이 이중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지각에 대한 입장이 갈림.

(나) 2문단 **객관주의 철학**의 두 입장: ① 의식을 물질로 환원 → 지각 =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 ②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 → 지각 = 감각된 사물에 대한 **의식의 판단**. 둘 다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며,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존재한다고 봄.

(나) 3~4문단 필자: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임. 손이 맞닿을 때 만지는 동시에 만져지듯,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순간에 나와 대상을 구분함 →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후** 확정되므로 **지각과 감각은 구분되지 않음**. 지각은 물질적 반응도 의식의 판단도 아닌 **내 몸의 체험**이며,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임.

핵심 개념 정리

기능주의 vs 설

기능주의: 함수적 역할(입력-출력 쌍)이 같으면 의식도 같음. 설: 중국어 방 — 기능이 같아도 의식은 다름(의식 ≠ 함수적 역할).

심적 상태 vs 파생적 상태

심적 상태(기억·믿음)는 어떤 것에도 의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냄.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이나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냄.

로랜즈의 확장 인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해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함. 확장되는 것은 심적 상태가 아니라 인지 과정이며, 주체와 통합되어야만 성립.

객관주의 철학의 두 입장

물질 환원(지각=물질적 반응, (가)의 동일론과 연결) / 의식의 독자적 실체(지각=의식의 판단). 공통적으로 지각 이전에 주체와 대상이 분리·확정되어 있다고 전제.

(나) 필자의 지각관

지각 = 주체·대상 분리 이전의 얽힘의 체험 = 내 몸의 체험.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후에 확정되며, 지각과 감각은 구분되지 않음.

(가)와 (나)의 접점

(나) 필자는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지 주체'를 전제한 로랜즈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함.

한눈에 비교

입장	의식/지각에 대한 견해	핵심 근거·특징
동일론((가))	의식 = 뇌의 물질적 상태	뇌가 없으면 의식도 없음
기능주의((가))	의식 = 기능(함수적 역할)	입력-출력 쌍이 같으면 같은 의식, 구현 물질 무관
설((가))	기능이 같아도 의식은 다를 수 있음	중국어 방 사고 실험
로랜즈((가))	인지 과정이 몸 바깥으로 확장됨	파생적 상태 조작 → 심적 상태 발생, 주체와 통합 필수
객관주의-물질 환원((나))	지각 = 감각 자극에 따른 물질적 반응	주체·대상 분리 전제
객관주의-독자적 실체((나))	지각 = 의식의 판단	주체·대상 분리 전제
(나)의 필자	지각 = 얽힘의 체험, 내 몸의 체험	주체·대상은 지각 이후 확정, 지각과 감각 구분 불가

05 사회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이동권

핵심 한 줄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소유권을 빅 데이터 보유자와 정보 주체 중 누구에게 귀속할지 논의되다가, 최근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법으로 명문화함. 이동권 법제화는 기업의 생성·거래 비용 절감과 공유·유통 촉진을 가져오지만, 데이터 집중에 따른 유통 위축과 독점화 강화의 우려도 있음.

정보 주체 # 빅 데이터 보유자 # 데이터 소유권 # 데이터 이동권 # 생성 비용 # 거래 비용 # 독점화

지문 요약

1문단

교통 이용 내역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임.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재사용이 수월**함.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처리되면 **빅 데이터**가 되고, 그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 데이터 보유자**임. 산업 분야 빅 데이터는 특정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경제적 가치**를 지님. 즉 개인 데이터 → (집적·처리) → 빅 데이터 → (특정 목적 활용) → 경제적 가치의 흐름임.

2문단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소유권 귀속**에 대한 두 견해가 있음. **빅 데이터 보유자 귀속설**: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주면 빅 데이터의 생성·유통이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함. **정보 주체 귀속설**: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봄. 두 견해 모두 데이터를 재화로 보는 전제는 같으나, 전자는 산업 활성화에, 후자는 부의 집중이 부당하다는 점에 초점을 둠.

3문단①

최근 논의의 중심이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 접근 방안인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는 중임. 우리나라는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함. 이동권은 정보 주체가 요청하면 보유자가 데이터를 본인 또는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나, 보유자가 수집해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제외**됨. 즉 논의가 '누가 소유하는가'에서 '정보 주체가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이동시키는가'로 옮겨 감.

3문단②

법제화 이전에도 **계좌 자동 이체 항목** 이동 서비스는 있었으나 은행 간 약정에 따른 **부분적 조치**였음. 이동권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 즉 이동권은 은행 간 약정이 아닌 법에 근거해 정보 주체의 자율적 통제를 넓힌 것임.

4문단 [A]

이동권 법제화로 기업은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생성 비용은 기업 내 데이터 개발 시 드는 비용으로, 스스로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재사용하면 절감됨.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계약 체결·분쟁 해결 등에서 생기는 비용임. ㉮(정보 주체가 지정해 전송받는 기업)가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이 절감됨 → 기업 간 **공유·유통 촉진**, 관련 산업 활성화. 즉 [A]는 이동권 법제화를 데이터 공유·유통의 활성화 요인으로 봄.

5문단 [B]

정보 주체가 **보안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옮기면 **데이터 집중**으로 공유·유통이 **위축**될 우려도 있음. ㉰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임. 그런데 ㉱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집적·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음. 즉 [B]는 같은 이동권이 오히려 공유·유통 위축과 독점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아 [A]와 대비됨.

핵심 개념 정리

정보 주체 vs 빅 데이터 보유자

정보 주체=데이터의 주인인 개인, 빅 데이터 보유자=데이터를 집적·처리하는 기업 등. 선지에서 주체를 바꿔 치는 함정이 핵심.

데이터 소유권 논쟁

보유자 귀속설(생성·유통 용이 → 산업 활성화) vs 정보 주체 귀속설(부 집중 부당 →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 우리나라는 소유권을 명문화하지 않음.

데이터 이동권

정보 주체 요청 시 본인 또는 지정 제3자에게 '무상' 전송하게 하는 권리. 단, 보유자가 분석·가공해 새 가치를 만든 데이터는 대상 아님.

생성 비용 / 거래 비용

생성 비용=기업 내 데이터 개발 비용(전송받은 데이터 복제·재사용으로 절감), 거래 비용=계약 체결·분쟁 해결 등 경제 주체 간 거래 비용.

이동권의 양면 효과

[A] 비용 절감 → 공유·유통 촉진, 산업 활성화 / [B] 특정 기업으로 데이터 집중 → 공유·유통 위축, 신규 기업 진입 곤란, 독점화.

법제화 이전의 이동

계좌 자동 이체 항목 이동은 법이 아닌 은행 간 약정에 따른 부분적 조치로 이미 가능했음.

한눈에 비교

구분	[A] 4문단 입장	[B] 5문단 입장
이동권 법제화의 효과	생성·거래 비용 절감	보안·혜택 좋은 기업으로 데이터 집중
공유·유통	기업 간 공유·유통 촉진	공유·유통 위축 우려
산업·시장	관련 산업 활성화	신규 기업 시장 진입 곤란 → 독점화 강화
등장 주체	㉮ 전송받는 기업, ㉯ 보유했던 기업	㉰ 데이터 적은 신규 기업, ㉱ 데이터 집중된 기존 기업

06 과학·기술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와 응용

핵심 한 줄

초정밀 저울은 압전 효과를 이용한 수정 진동자로 미세 질량을 재는데,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하는 원리를 이용함. 이를 응용해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한 진동자로 기체 농도를 감지하며, 농도별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두어야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있음.

압전 효과 # 압전체(수정) # 고유 주파수 # 수정 진동자 # 질량 민감도 # 반응 시간 # 농도에 대한 민감도

지문 요약

1문단 일반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해 질량을 잼. 기체 분자나 DNA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재는 **초정밀 저울**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압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글은 압전 효과 → 수정 진동자의 질량 측정 원리 → 기체 농도 측정으로의 응용 순으로 전개됨.

2문단 **1차 압전 효과**: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에 전압이 발생함. **2차 압전 효과**: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김. 두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 하며, 주로 **수정**이 쓰임. 즉 1차는 '변형 → 전압', 2차는 '전압 → 변형'으로 인과의 방향이 반대이며, 압전체는 두 방향이 모두 가능한 재료임.

3문단① 수정을 특정 방향으로 절단·가공해 **납작한 원판**으로 만들고 양면에 **전극**을 만든 뒤, (+)와 (−)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함.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큰 폭으로 진동하게 해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임. 고유 주파수는 물체의 고유한 진동 주파수로, 같은 재료의 압전체라도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짐. 즉 전압의 주파수는 고유 주파수에 '맞추는' 것일 뿐 고유 주파수 자체를 바꾸지는 않으며,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이라도 크기가 다르면 고유 주파수가 다를 수 있음.

3문단② 수정 진동자에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주파수가 감소**함.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도 민감하게 변하므로 미세 물질의 질량 측정이 가능함. **질량 민감도 = 주파수 변화 정도 ÷ 측정된 질량**이며, 수정 진동자는 이 값이 **매우 큼**. 즉 질량 민감도가 크다는 것은 같은 질량 변화에도 주파수가 크게 변한다는 뜻이며, 이 때문에 주파수 변화로 미세한 질량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음.

4문단 질량 측정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음.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기체가 달라붙으며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일정 시점부터 **일정한 값을 유지**함.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일정해짐(농도↑ → 달라붙는 기체 양↑ → 질량↑ → 유지되는 주파수 값↓). 기체가 붙어 주파수가 일정해지기까지의 빠르기가 **반응 시간**이며, 짧을수록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음.

5문단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려움**(다른 기체의 질량까지 더해져 주파수가 더 감소하기 때문). 또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도를 알 수 없음**. 따라서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두고,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재면 농도를 알 수 있음. **농도에 대한 민감도 = 주파수 변화 정도 ÷ 농도**. 즉 정확한 측정에는 진동자를 대상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는 것과 함께, 농도별 주파수 변화라는 기준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핵심 개념 정리

1차 vs 2차 압전 효과

1차: 기계적 변형 → 전압 / 2차: 전압 → 기계적 변형. 압전체는 두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수정은 '주로' 쓰이는 것일 뿐 유일하지 않음).

고유 주파수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 같은 재료라도 모양·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가하는 전압에 의해 바뀌지 않음. 전압 주파수를 여기에 '맞추는' 것.

질량-주파수 관계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 증가 → 진동자 주파수 감소. 붙은 질량이 클수록 주파수는 더 작아짐.

질량 민감도 / 농도에 대한 민감도

질량 민감도=주파수 변화 정도÷측정 질량, 농도 민감도=주파수 변화 정도÷농도. 분모가 같으면 주파수 변화가 클수록 민감도가 큼.

반응 시간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붙어 주파수가 일정해지는가의 척도. 붙는 양과 무관하게 걸린 시간이 짧으면 반응 시간이 짧음.

기체 농도 측정 절차

농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 → 미지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 측정 → 농도 산출. 고유 주파수만 미리 재는 것으로는 불가.

한눈에 비교

구분	1차 압전 효과	2차 압전 효과
원인 → 결과	기계적 변형 → 전압 발생	전압 인가 → 기계적 변형
수정 진동자에서	압전체(수정)가 지닌 성질	교류 전압을 가해 수정을 진동시킴

07 인문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

핵심 한 줄

(가)는 경국대전의 법적 양천제와 양인의 사회적 분화, 조선 후기 노비 속량의 제도화와 상민층의 '유학' 직역 획득에 따른 신분제 변동을 설명함. (나)는 유형원과 정약용이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해 사 집단을 재편하고 지배층-피지배층 차등을 유지하며 도덕 국가를 추구한 개혁론을 소개함.

양천제 # 속량 # 유학(幼學) 직역 # 도덕적 능력주의 # 유형원·공거제 # 정약용·선사 # 사(士) 집단

지문 요약

(가) 1문단 경국대전의 법적 신분제는 양인·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임. 양인은 과거 응시가 가능하나 납세·군역 의무를 졌고, 천인은 개인·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함. 관료 집단이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지며 양인이 **사회적으로** 양반·중인·상민으로 분화됨. 이 **법적·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임.

(가) 2문단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 증대·상공업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어 신분제가 변화함. 천인 대다수인 노비는 **속량·도망**으로 억압에서 벗어남. 영조 때 **속대전**은 속량가를 **100냥**으로 정해 속량을 제도화함 → 국가 재정상 노비제 유지보다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 **몰락 양반**은 노비 유지가 어려워 몸값을 받고 속량해 줌.

(가) 3문단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함. 유학은 본래 벼슬하지 않은 유생을 뜻했으나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의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고, 호적상 **군역 면제** 특권이 있었음. 유학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이나 **온전한 양반 인정은 아님**. 인정받으려면 ㉠ 유교적 의례 준행, 문중·족보 편입 등이 필요해 일부 상민은 **양반 문화를 모방**함.

(가) 4문단 신분 상승으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함. 양반의 진입 저지 힘도 작동했지만 비양반층의 **접근하려는 힘이 더 강하게** 작동했고, **유학의 증가**가 그 단면임.

(나) 1문단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어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양반 외 신분은 관료가 되기 어려웠음. 이에 17세기 **유형원**(반계수록), 19세기 **정약용**(경세유표 등)이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개혁론을 제시함.

(나) 2문단 유형원은 성리학적 가치로 운영되고 구성원도 도덕적인 **도덕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함. 신분 세습을 비판해 **노비제 폐지**를 주장하고, 광대 같은 비도덕적 직업군을 철폐해 사농공상의 **사민**으로 편성하고자 함. 과거제 대신 **공거제**: 도덕적 능력자를 **추천**으로 선발→여러 단계 교육→최소한의 학식 확인 후 관료 임명. 지방에도 선발 인원을 분배해 **향촌 풍속**을 도덕적으로 이끌고자 함.

(나) 3문단 정약용은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사농공상별 거주** 등 행정 구역 개편을 구상하고 사 집단을 재편하고자 함. 도덕적 능력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 **'선사'**를 뽑아 교육한 뒤 **여러 단계의 시험**으로 관료 선발. ㉡ 사 거주지에서 더 많이 뽑되 농민·상공인에도 인원을 배정함(노비 제외). 노비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봄.

(나) 4문단 두 사람 모두 **지배층으로서의 사**에 주목함. 유형원은 사와 민의 구분이 천하의 이치라 보고 ㉢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사를 구성하려 했고, 정약용도 **양반 세습을 비판**하며 이에 동의함. 둘 다 사 집단에 정치권력·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지배층-피지배층 **차등을 엄격히 유지**하려 함 → 지배층 재구성을 통한 **도덕 국가** 추구.

핵심 개념 정리

법적 신분제 vs 사회적 신분제

법적: 양인·천인 두 신분(양천제, 갑오개혁까지). 사회적: 양인이 양반·중인·상민으로 분화. 유학 증가는 사회적 신분 내 변동이지 법적 체계의 붕괴가 아님.

속량의 제도화

속대전이 속량가 100냥 규정. 국가는 노비를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상 유리, 몰락 양반은 몸값을 받고 속량해 줌.

유학 직역

호적상 군역 면제 특권 →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 그러나 온전한 양반 인정에는 ㉠(유교적 의례 준행, 문중·족보 편입 등)이 필요 = 양반이 비양반의 진입을 막는 장치.

유형원의 개혁론

노비제 폐지, 비도덕적 직업 철폐·사민 편성, 공거제(추천→교육→최소 학식 확인→임명, 시험 언급 없음), 지방 선발 인원 분배.

정약용의 개혁론

사농공상별 거주 행정 개편, 추천으로 선사 선발→교육→여러 단계 시험, 농공상에도 선사 배정(노비 제외), 노비제 유지.

두 사람의 공통점

도덕적 능력주의, 양반 세습 비판, 사 집단에 권력·경제력 집중, 지배층-피지배층 차등 엄격 유지, 도덕 국가 추구. 신분 이동은 허용하되 차등 자체는 유지.

한눈에 비교

구분	유형원(17세기, 반계수록)	정약용(19세기, 경세유표)
노비제	폐지 주장(신분 세습 비판)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 주장
관료 선발	공거제: 추천 선발 → 여러 단계 교육 → 최소한의 학식 확인 후 임명	추천으로 선사 선발 → 교육 → 여러 단계 시험으로 선발
사회 편성	비도덕적 직업(광대 등) 철폐, 사농공상 사민 편성	사농공상별 구분 거주 등 행정 구역 개편
선발 인원 배분	지방에도 적절히 분배(향촌 교화)	사 거주지에서 더 많이, 농·공·상에도 배정(노비 제외)
공통점	**도덕적 능력주의, 사 집단에 권력·경제력 집중, 지배층-피지배층 차등 엄격 유지**	

08 사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마식 보도의 특성과 보완 방안

핵심 한 줄

지지율 변화·득표율 예측에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참여 독려라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특별규정·보도준칙(㉮~㉰)으로 보도를 제한함. 보완책인 선거 방송 토론회의 초청 대상 제한 규정(㉡)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다수·소수 의견이 엇갈림.

경마식 보도 # 공직선거법(㉮)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 오차 범위 # 선거 방송 토론회(㉡) # 기회균등 원칙

지문 요약

1문단

경마식 보도: 경마 중계하듯 지지율 변화·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 방식.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 →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에게도 매일 새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시청자 요구와 방송사 이해가 맞물림). 무관심한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독려**라는 장점이 있음. 반면 흥미 위주로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 저해** 가능 → 참여 독려와 공정성 저해라는 양면성을 지님.

2문단 (㉮)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 ㉮ **「공직선거법」**: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실시는 언제든 가능**하나, **결과 보도는 선거일 6일 전~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 이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 →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 즉 여론조사의 '실시'와 '결과 보도'를 구분해 규제하므로, 선거일에 실시한 조사도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는 보도 가능.

2문단 (㉯·㉰)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공직선거법」에 근거):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 금지**, 결과가 오차 범위 내일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서열·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 ㉰ 언론 단체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표본 오차를 감안한 정확한 보도 요구 →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면 **'경합'** 표현은 무방하나,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처럼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는 불가. ㉯는 오차 범위를 밝히지 않은 우열 보도를 금지하는 반면, ㉰는 오차 범위 내의 우열 표현 자체를 막는다는 점에서 더 엄격함.

3문단

경마식 보도로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으로 **선거 방송 토론회** 활용 가능 →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남. 다만 현실적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됨. ㉡ 「공직선거법」의 초청 기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나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등.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를 위한 **별도 토론회** 개최 가능(시간·횟수는 다르게 할 수 있음). 즉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라도 지지율 기준을 충족하면 초청 대상이 될 수 있음.

4문단

㉡이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 ⓐ **다수 의견**: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상 초청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 토론이 어렵고, 유권자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움 → **합리적 제한**. ⓑ **소수 의견**: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고,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며, 참여·불참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듦 → 소수 정당·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차별적 침해**. 결국 ⓐ는 토론의 효율성·심층성을, ⓑ는 후보자 간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을 중시함.

핵심 개념 정리

경마식 보도의 양면성

장점: 정치 무관심 유권자의 참여 독려 / 단점: 흥미 치중으로 주요 의제 도외시, 경쟁 결과에 초점 → 공정성 저해. 시청자 요구와 방송사 이해가 '일치'하여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증가.

㉮ 공직선거법

규제 대상은 '보도 시기'. 조사 실시는 언제나 가능, 결과 보도만 선거일 6일 전~투표 마감 시각 금지 → 투표 마감 후 보도는 가능.

㉯ vs ㉰

둘 다 '오차 범위'에 관한 규정(보도 시기와 무관). ㉯는 오차 범위 내 결과를 '오차 범위를 밝히지 않은 채' 서열·우열 보도하는 것을 금지, ㉰는 오차 범위 내면 밝히더라도 서열화·우열 표현 금지('경합'만 허용).

오차 범위 판단

1·2위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보기>에서 8.8%P) 이내인지가 ㉯·㉰ 적용의 관건. 차이가 오차 범위 밖이면 서열 보도 가능.

㉡ 초청 기준

정당 추천(국회의원 5인↑ 정당, 직전 선거 3%↑ 득표 정당) 또는 평균 지지율 5%↑ — '또는'이므로 정당 추천 없어도 지지율 요건으로 초청 가능.

ⓐ 다수 vs ⓑ 소수

ⓐ 효율적 운영(시간 제한·후보 수·관심 후보 비교) 근거로 합리적 제한 → 합헌. ⓑ 기회 박탈·동시 비교 불가·차별적 인식 근거로 자의적·차별적 침해.

한눈에 비교

구분	성격	핵심 내용	판단 포인트
㉮ 공직선거법	법률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선거일 6일 전~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	보도 '시기'
㉯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에 근거한 규정	오차 범위 내 결과를 오차 범위를 밝히지 않은 채 서열·우열 보도 금지	오차 범위 명시 여부
㉰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언론 단체 준칙	오차 범위 내면 '경합'만 허용, 서열화·'오차 범위 내 앞섰다' 금지	서열·우열 표현 자체
ⓐ 다수 의견(㉡)	합헌	효율적 운영 위해 초청 대상 제한은 합리적	심층 토론, 관심 후보 비교
ⓑ 소수 의견(㉡)	위헌 취지	소수 정당·정치 신인에 대한 자의적·차별적 침해	기회 박탈, 동시 비교 불가, 차별적 인식

09 기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데이터에서 결측치와 이상치의 처리방법

핵심 한 줄

결측치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 평균·중앙값·최빈값으로 대체하고,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낼 때는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함. 평면상 점 데이터에서는 A 기법으로 무작위 두 점의 후보 직선과 정상치 집합을 반복 검토해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음.

결측치 # 대체(평균·중앙값·최빈값) # 이상치 # 대푯값 # 직선 L # A 기법 # 정상치 집합·문턱값

지문 요약

1문단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함.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려움 → 데이터의 특징을 정확히 나타내려면 결측치와 이상치를 적절히 처리해야 함. 이후 결측치의 대체 방법, 이상치와 대푯값, 평면 데이터의 이상치 처리 기법을 차례로 설명함.

2문단 **결측치**: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 처리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으로, 평균·중앙값·최빈값을 많이 사용함. **중앙값**: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여도 순위를 매겨 찾고, 데이터 개수가 짝수면 중앙 두 값의 평균). **최빈값**: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수치 → **평균**,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 → 중앙값, 직업처럼 문자인 경우 → 최빈값으로 대체. 즉 데이터 값의 성격(연속적 수치·순위·문자)에 따라 대체값이 달라지며, 최빈값은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음.

3문단 **이상치**: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 수집 시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김.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값이 있을 수 있음(예: 프로 선수들의 연봉 데이터 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은 경우).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 할 때 ㉠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함 → 평균은 유달리 큰 값에 끌려가지만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 이처럼 측정 오류가 없는 정상적 데이터에도 이상치는 존재할 수 있음.

4문단 **평면상 점**들의 위치 데이터에서도 이상치 발견 가능.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냄 → 이를 **직선 L**이라 함.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몇 개의 점들이 이상치임. 즉 평면 데이터에서는 하나의 수치 대신 직선 L이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며, 이상치는 이 직선과의 거리로 판별됨. 문제는 이상치가 섞인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어떻게 찾느냐임.

5문단 (A 기법 절차) ㉡ 이상치를 포함한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 **A 기법**: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 →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긋고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함 →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 정상치 집합의 점 개수가 미리 정해 둔 기준인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고, 적으면 버림. 즉 후보 직선 근처에 충분히 많은 점이 모이는지를 기준으로 후보 직선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임.

5문단 (직선 L 선택) 처음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이 후보 직선과 거리가 너무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됨. 이 과정을 **반복**해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그중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함 →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음**. 즉 무작위 선택과 반복을 통해 이상치에서 출발한 직선을 걸러 내는 방식임.

핵심 개념 정리

결측치 대체 기준

연속적 수치→평균 / 순위 있는 값(석차)→중앙값 / 문자(직업)→최빈값. 최빈값은 수치가 아니어도 구할 수 있음.

중앙값 구하는 법

크기순 정렬 후 중앙의 값. 같은 값이 여러 개여도 순위를 매겨 찾고, 데이터 개수가 짝수면 중앙 두 값의 평균 → 데이터에 없는 값일 수도 있음.

이상치의 정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 정의의 핵심. 원인(측정 오류)은 '주로'일 뿐 → 정상 수집 데이터에도 이상치 존재 가능, 측정 오류 값이라도 유달리 크거나 작지 않으면 이상치 아님.

㉠ 중앙값을 대푯값으로 쓰는 이유

평균은 극단의 이상치에 크게 끌려가지만, 중앙값은 순위상 중앙의 값이라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음.

A 기법의 절차

무작위 두 점 → 후보 직선 → 허용 범위 내 점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 → '정상치 집합 점의 개수'를 문턱값과 비교 → 최종 후보군 중 정상치 집합 개수 최대인 직선 선택.

한눈에 비교

구분	A 기법(지문)	B 기법(<보기>)
후보 직선 설정	무작위로 고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임의로 여러 개 가정
거리 계산	후보 직선과 나머지 점 사이 거리 → 허용 범위 내 점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까지 거리
이상치 처리	정상치 집합 개수가 문턱값 미만인 후보 직선을 버려 사실상 배제(단, 허용 범위에 따라 이상치가 정상치 집합에 들어갈 수 있음)	이상치를 배제하는 과정 없음
선택 기준	최종 후보군 중 정상치 집합 데이터 개수 최대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
결과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 높음	대부분 최적 직선과 이상치 사이의 직선 → L로 부적합

10 인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노자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

핵심 한 줄

(가)는 한비자가 노자의 도를 영원하되 가변적인 것이자 개별 법칙을 통합한 시비 판단의 근거로 해석해 법치 사상을 뒷받침한 것을 다룸. (나)는 송·원·명의 유학자 왕안석·오징·설혜가 각 시대 배경과 의도에 따라 노자의 도를 기·불변의 근원·천명 등으로 보며 유학과 연결해 해석한 것을 다룸.

도(道) # 한비자의 법치 # 도의 가변성 # 시비 판단의 근거 # 왕안석(기·개혁) # 오징(불변의 도·도교 경계) # 설혜(도덕 본성·천명)

지문 요약

(가) 1문단 「한비자」는 전국 시대 한비자의 사상이 담긴 저작.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에 **엄격한 법치**로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노자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함. 이런 면모는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 가능.

(가) 2문단 노자에서 도 = **만물 생성의 근원**. 한비자도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로 보아 이와 다르지 않음.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으며,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에 따라 **성패**가 드러난다고 이해함.

(가) 3문단 노자의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 → 한비자: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뜻은 아님. 도는 형체가 없고 고정되지 않아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함. 도가 **가변성**을 가져야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아 모든 사물의 존재·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도가 가변적이므로 **통치술도 고정되어선 안 됨**.

(가) 4문단 도 = 구체적 사물·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 →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 의미 부여, 이런 도에 근거해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 가능. 만족을 모르는 욕망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는 노자에 동의하나, 욕망을 없애야 한다는 노자와 달리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지므로 이를 제어할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

(나) 1문단 유학자들의 도 = **인간 삶의 올바른 길**.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함.

(나) 2문단 **왕안석**(송, 중앙집권화 후 정치적 갈등 속 **개혁** 분위기, 노자주): 도 =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氣)**,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으로 사물이 형성되며 기가 시시각각 변하듯 현상 세계도 변화. 인위 제거를 주장한 노자를 비판하며 인간 사회 안정에는 제도·규범 제정 등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고, 제도·규범도 현실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봄. 노자의 이상 정치 실현에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

(나) 3문단 **오징**(원, **도교** 성행, 도덕진경주): 도교를 주술적 종교로 보고 ㉠ **유학자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도교에 빠지는 것을 경계함.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다르지 않음을 밝히려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짓는 구절을 추가하고 구성 체제를 재편. 도 = **근원적·불변**의 도,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 생성 → 인의예지도 도의 쇠퇴 때문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사회 규범·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

(나) 4문단 **설혜**(명, 여러 사상 합류, 노자집해): ㉡ **학문적 소신**에 따라 저술. 공자도 존중한 스승이 노자이므로 오해를 불식해야 하며, 기존 주석서가 진정한 의미를 밝히지 못해 유학자들이 노자를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봄. 다양한 경전을 인용해 도 =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와 유학은 다르지 않음. 노자의 인의 비판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려는 충고로 파악.

핵심 개념 정리

한비자의 도의 항상성

'영원히 존재함'이라는 의미이지 '모습과 이치가 일정함'이 아님. 형체가 없고 고정되지 않아 때와 상황에 따라 변함 → 통치술도 고정 불가.

한비자의 시비 판단 근거로서의 도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므로 다양한 사건의 시비 판단 기준이 됨 → 도에 근거해 입법. 도가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님.

한비자 vs 노자: 욕망

욕망이 혼란의 원인이라는 점은 동의. 노자는 욕망 제거, 한비자는 욕망은 필연적이므로 법으로 제어.

왕안석의 기(氣)

도=기,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 기의 변화처럼 현상 세계도 변화 → 제도·규범도 변화에 따라 새롭게. 인위 제거를 주장한 노자 비판, 유학 이념을 실질적 수단으로.

오징의 불변하는 도

도는 근원적·불변,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만물·인의예지·사회 규범이 드러남. 노자 원문을 추가·재편.

설혜의 도덕 본성·천명

도=도덕 본성과 그 근거인 천명.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와 유학은 같음. 노자의 인의 비판은 긍정적 의도의 충고.

한눈에 비교

학자(시대)	저술·배경	도에 대한 이해	노자에 대한 태도·주장
한비자(전국)	「해로」·「유로」 / 혼란기, 법치로 부국강병	만물의 근거, 영원히 존재하나 가변적, 개별 법칙의 통합·시비 판단 근거	욕망 제거 대신 법으로 제어, 도에 근거해 입법, 통치술도 고정 불가
왕안석(송)	노자주 / 중앙집권화 후 개혁 분위기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 시시각각 변화	인위 제거론 비판, 제도·규범의 적극적 제정과 변화, 유학 이념을 실질적 수단으로
오징(원)	도덕진경주 / 주술적 도교 성행	근원적·불변하는 도,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해 만물 생성	노자와 공자의 학문이 다르지 않음, 인의예지·사회 규범도 도의 현실화, 원문 수정·재편
설혜(명)	노자집해 / 여러 사상 합류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 근거인 천명	노자는 공자가 존중한 스승, 이단 오해 불식, 인의 비판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는 충고
왕부지(청, <보기>)	노자연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 비판	노자의 비현실성 비판, 기존 주석은 다른 사상을 기준으로 삼아 왜곡, 유학 규범으로 사회 질서 유지

01 고전시가·수필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 한거십팔곡 권호문

01 작품 해제

갈래	연시조(전 19수), 강호가도
성격	강호한정적, 성찰적, 유교적
화자/어조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 고민하다 자연 속 은거를 택하는 사대부 /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
주제	공명과 은거 사이의 갈등과 그 해소, 한가로운 강호의 삶에 대한 긍정
특징	각 수가 긴밀히 연결되어 태도 변화 과정을 형상화함 ; 대구법·설의법 활용 ; 자연물(어조)을 의인화하여 청자로 설정함

작품 개관

사대부인 작가가 **출사(공명)와 은거** 사이에서 겪은 내적 갈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소되는 과정을 그린 연시조임. 충효 실천의 다짐(제1수)에서 출발해 은거로 마음이 기울고(제3·8수), 자연 속 한거의 만족(제13수)과 도에 대한 깨달음(제17수)을 거쳐 **갈등 해소를 통한 정신적 성숙**(제19수)에 이름.

02 작품 분석

제1수

>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평생의 소원이 **충효**뿐이라 하며 이를 모르면 금수와 다르지 않다고 함. 충효를 이루려 '십재 황황(십 년을 허둥지둥함)'했다고 하여 **출사**를 향한 지난 삶을 돌아봄.

제3수

>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공명을 못 이뤄도 임천(자연)이 좋다고 하며 욕심 없는 '무심 어조'를 동경함. 어조를 '너'로 부르는 **의인화**가 쓰임. '조만간' 잊겠다는 말에서 아직 세속을 다 잊지 못한 **심리적 갈등**이 드러남.

제8수

>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의 **대구**로 군자의 두 삶을 제시함. 부귀는 위태롭다는 인식 아래 가난한 삶을 택하겠다고 하여 마음이 **은거(처)** 쪽으로 기울어짐.

제13수

>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

할 일 없이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운 **한거**의 모습을 보여 줌. 세속에 대한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하여 자연 속 **만족감**을 드러냄.

제17수

> 도(道)가 어찌 다르리

성현의 길은 만고에 같으며 은거하든 출사하든 **도는 다르지 않다**고 **설의법**으로 강조함. 따라서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는 깨달음에 이름.

제19수

> 십 년 전 진세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세월이 빨라 백 년도 길지 않다고 인식함. 과거 충효를 위해 허둥대던 '진세 일념'이 **얼음 녹듯** 사라졌다는 **비유**로 내적 갈등의 해소를 드러냄.

(나) 기취서행 김낙행

01 작품 해제

갈래	고전 수필, 한문 수필
성격	성찰적, 반성적, 유교적
화자/어조	겨릅을 얻으려다 의리를 잃은 글쓴이 '나' /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적 어조
주제	이욕에 사로잡혀 의리를 잊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
특징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을 반성함 ; 비유로 심리 상태를 부각함 ; 고인(맹자·이극)의 말을 인용해 깨달음을 제시함

작품 개관

글쓴이가 집 수선에 쓸 **겨릅**(껍질 벗긴 삼대)을 얻으러 취서사에 갔다가 이욕에 끌려 **의리**를 지키지 못한 일을 기록한 수필임. 처음엔 의리를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합리화**했으나, 뒤늦게 부끄러움을 깨닫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됨.

02 작품 분석

1단락

> 의리를 심히 해치지 않을 듯하였다

아내가 겨릅을 구해 오길 권하고 유택은 반대, 유평은 찬성함. 절은 기와를 써서 겨릅을 아끼지 않는다고 여겨 의리를 해치지 않으리라 **합리화**함. 처숙부 상사공을 따라 취서사로 감.

2단락

> 곧 시장판을 만들었으며

근방 사람들이 겨릅을 차지하려 다투어 절이 **시장판**이 됨. 많고 적음이 힘의 강약에 따라 정해지는 모습에서 **이익 앞에 흔들리는 인간**의 세태가 드러남.

3단락

> 의리를 이욕에 빼앗겨서

민망하게 여기면서도 **이욕**을 떨치지 못하고 상사공의 힘으로 수십 묶음을 얻음. 집에 와서는 술에서 깬 사람이 취했던 때를 되짚는 듯하다는 **비유**로 부끄러움을 깨닫는 상태를 부각함.

4단락

> 청렴하고 정직하여

아내와 유평도 이럴 줄 알았다면 권하지 않았으리라 여김. 힘이 있음에도 간섭하지 않은 **상사공**의 청렴함을 자신과 **대조**하며, 그가 자신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 도왔다고 짐작함.

5단락

> 궁해도 의(義)를 잃지 않는다

맹자·이극의 말을 인용해 가난한 유학자의 자세를 제시함. 의를 잃고 어른께 폐를 끼친 일을 부끄러워하며, 경계로 삼고자 기록한다는 **창작 동기**를 밝힘.

감상 포인트 (가) 한거십팔곡

태도 변화 과정

제1수 '십재 황황' → 제3수 '조만간 ~좇으려' → 제8수 은거 선택 → 제19수 '일념이 얼음 녹듯'으로 연결됨.

출(出)과 처(處)의 대비

치군택민(출사)과 조월경운(은거)을 **대구**로 제시하고, 결국 둘의 도가 같다는 인식에 도달함.

무심 어조

욕심 없는 물고기와 새로, 화자가 **동경·친화**하는 대상이자 의인화된 청자임.

시간 표현

'십재'는 과거의 허둥댄 세월, '만고'는 변함없는 도, '백세'는 짧은 인생, '십 년 전'은 과거 일념을 가리킴.

감상 포인트 (나) 기취서행

의리 vs 이욕

유학자의 신념(의리)과 세속적 이익(이욕)의 갈등이 중심이며, 결국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과오**를 성찰함.

심리 변화

합리화 → 민망함 → 다행스러움 → 부끄러움·반성으로 변화함.

비유적 표현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은 탐욕에서 벗어나 **본심을 회복**한 상태를 드러냄.

인물 대비

반대한 유택(바른 충고), 청렴한 상사공은 글쓴이의 잘못을 비추는 기준 역할을 함.

작품 비교 한거십팔곡 · 기취서행

구분	(가) 한거십팔곡	(나) 기취서행
화자/주체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대부	겨릅을 얻으려다 의리를 잃은 글쓴이
갈등	공명(출사)과 은거 사이의 내적 갈등	의리와 이욕 사이의 갈등
태도/정서	갈등 해소 후 강호의 한거를 긍정함	과오를 부끄러워하며 반성·다짐함
표현	대구법, 설의법, 자연물의 의인화, 비유	비유, 고인의 말 인용, 인물 대조
공통점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남**	

02 고전시가 2학기 수업 자료

관동별곡 정철

01 작품 해제

갈래	양반 가사, 기행 가사, 정격 가사
성격	서정적, 기행적, 묘사적, 연군적
화자/어조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해 관동 지방을 유람하는 작가 자신 / 감탄과 예찬, 포부를 드러내는 어조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 예찬과 연군의 정, 선정에 대한 포부
특징	여정에 따라 견문과 감상을 서술하는 추보식 구성 ; 대구·직유·은유·과장·설의 등 다양한 표현 ;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3·4조, 4음보 율격

작품 개관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해 내금강·외금강·해금강과 관동 팔경을 유람하며 느낀 경치와 감회를 담은 기행 가사임. 지문은 서사(부임과 한양~원주 여정)에서 시작해 철원·회양을 거쳐 **내금강 만폭동**을 지나고, 중략 후 **비로봉**과 **화룡소**에 이르는 대목까지임. 자연 감상 속에서도 **연군**과 **선정의 포부**를 함께 드러냄.

02 작품 분석

서사(부임)

> 강호(江湖)에 병(病)이 깁퍼

자연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천석고황**의 상태로 죽림에 지내다 관찰사 소임을 받음. '어와 성은이야'라는 **감탄**으로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고, 연추문·경회 남문을 지나 옥절을 받는 장면에서 **부임의 기쁨**과 속도감이 드러남.

여정(한양~원주)

> 소양강(昭陽江) 노린 믈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평구역·흑수·섬강·치악을 거쳐 원주에 이름. 소양강 물이 한양(임금)으로 흐른다는 **연상**으로 **연군지정**을 드러내고, 외로운 신하가 '백발'도 많다며 임금 곁을 떠난 **근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함.

철원·회양

> 천고(千古) 흥망(興亡)을 아는다 몰ᄋᆞ는다

북관정에서 '삼각산'이 보일 듯하다며 다시 **연군**의 정을 드러냄. 궁예의 대궐 터에서 지저귀는 오작에게 말을 거는 **의인법**으로 역사의 흥망에 대한 **무상감**을 나타냄. 회양이 한나라 급장유가 다스린 곳과 이름이 같음을 떠올리며 **선정의 포부**를 품음.

내금강 입구·만폭동

> 은(銀) ᄀᆞ튼 무지게 옥(玉) ᄀᆞ튼 룡(龍)의 초리

'영중이 무사하고'에서 선정을 은근히 과시하며, 계절적 배경이 **삼월(초봄)**임을 밝힘. '행장을 다 떨치고'에서 직무에서 벗어난 홀가분함이 드러남. 만폭동 폭포를 무지개·용의 꼬리에 빗댄 **직유·대구**와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의 **청각·시각적 심상**, 과장으로 웅장함을 묘사함.

비로봉

> 넙거나 넙은 텬하(天下) 엇띠ᄒᆞ야 젹닷 말고

비로봉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바라보며, 동산·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다 한 **공자의 호연지기**를 **설의법**으로 예찬함.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라며 오르지 못하는 처지를 스스로 정당화함.

화룡소

> 음애(陰崖)예 이온 플을 다 살와 내여ᄉᆞ라

굽이 서린 물을 '천년 노룡'에 빗대 경험 많은 신하인 자신을 투영함. '풍운'을 얻어 '삼일우'를 내리고 싶다는 소망과, '음애(그늘진 벼랑)의 이운 풀(시든 풀)'을 살리겠다는 표현을 통해 소외된 백성까지 돌보려는 **선정의 포부**를 드러냄.

감상 포인트

연군과 선정

소양강·삼각산은 **임금을 연상**시키는 소재이고, 회양(급장유)·화룡소(풍운·삼일우)는 **선정의 포부**와 연결됨.

화룡소의 비유

천년 노룡(경험 많은 신하), 풍운(선정의 기회), 삼일우(흡족한 비=선정), 음애(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 이온 플(굶주린 백성).

만폭동 묘사

대구, 직유, 은유, 과장과 **시각·청각적 심상**으로 폭포의 웅장함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

역사적 회고

궁예 왕의 대궐 터와 오작의 대비로 인간 역사의 **무상감**을 드러냄. 오작에게 말을 거는 **의인법**.

공자 예찬과 자기 합리화

비로봉 앞에서 공자의 호연지기를 예찬하되, 오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고이할까'라는 **설의**로 정당화함.

(가) 흥망이 유수하니~ 원천석

01 작품 해제

갈래	평시조, 회고가
성격	회고적, 애상적, 감상적
화자/어조	고려 왕궁 터를 지나는 고려 유신('객') / 애상적·영탄적 독백 어조
주제	고려 왕조 회고와 인생무상(무상감)
특징	화자를 '객'으로 표현하여 슬픔을 객관화함 ; '추초'(시각)·'목적'(청각) 등 감각적 이미지로 정서 환기 ; '-로다', '-노라'의 영탄적 어미 사용

작품 개관

고려 유신인 작가가 잡초 우거진 옛 궁궐 터 **만월대**를 바라보며 고려 멸망에 대한 **무상감**을 노래한 회고가임. 초장에서 폐허가 된 왕궁 터를, 중장에서 사라진 오백 년 왕업을 제시하고, 종장에서 지나는 객의 눈물로 슬픔을 집약함.

02 작품 분석

초장

>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ㅣ 로다 (만월대도 가을 풀만 우거졌구나)

'흥망이 유수ᄒᆞ니'에서 나라의 흥망은 운수에 달렸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남. 고려 왕궁 터 만월대가 '추초'로 덮였다고 하여 **쇠락한 고려 왕조**를 가을 풀의 시각적 이미지로 비유함.

중장

> 오백 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오백 년 왕업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남았으니)

찬란했던 오백 년 왕업이 이제 목동의 피리 소리에만 남았다고 하여 **인생무상**을 드러냄. '목적'은 **청각적 이미지**로 쓸쓸함을 더함.

종장

> 석양에 지나ᄂᆞᆫ 객이 눈물계워 ᄒᆞ노라 (석양에 지나는 나그네가 눈물겨워하노라)

해 지는 '석양'은 **하강의 이미지**로 고려 왕조의 멸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며 화자의 정서를 심화함. 화자 자신을 '객'으로 표현하여 **주관적 슬픔을 객관화**하고, 영탄적 어미로 침울한 심정을 드러냄.

(나) 국화야 너는 어이~ 이정보

01 작품 해제

갈래	평시조
성격	예찬적, 교훈적, 의지적
화자/어조	국화를 바라보는 선비 / 국화에게 말을 건네는 예찬적 어조
주제	오상고절을 보여 주는 국화에 대한 예찬
특징	국화를 '너'로 부르는 의인법·돈호법 ; '삼월동풍'과 '낙목한천'의 대비 ; 의문형 어미와 영탄법 활용

작품 개관

벼슬에서 물러난 작가가 추운 계절에 홀로 핀 **국화**를 예찬한 시조임. 초장·중장에서 봄을 마다하고 낙목한천에 핀 국화에게 묻고, 종장에서 국화를 **오상고절**이라 예찬하여 군자가 지녀야 할 덕목인 **절개**를 드러냄.

02 작품 분석

초장

>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국화야 너는 어찌하여)

국화를 '너'라 부르는 **의인법·돈호법**으로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넴. '삼월동풍'은 만물이 자라는 따뜻한 봄, 곧 꽃을 피우기 좋은 **평온한 시절**을 뜻함(이별의 시간이 아님).

중장

>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느냐 (잎 지는 추운 때에 너 홀로 피었느냐)

'낙목한천'은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상징하며 '삼월동풍'과 대비됨. '네 홀로'에 다른 꽃들과 대조되는 국화의 속성이 드러나고, **의문형 어미**로 국화에게 묻는 방식을 취함.

종장

>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ᄒᆞ노라 (서리에도 굴하지 않는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서릿발에도 굴하지 않는 국화를 '**오상고절**'로 예찬하며 **영탄법**으로 마무리함. 자연물의 특성을 통해 화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인간상(지조 있는 군자)**을 제시함.

(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황진이

01 작품 해제

갈래	평시조, 연정가
성격	연정적, 낭만적, 감각적
화자/어조	임과 헤어져 홀로 지내는 여인 / 그리움과 기다림을 담은 애틋한 어조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한 기다림
특징	추상적 개념(시간)의 구체화 ; 음성 상징어(의태어)로 우리말의 묘미를 살림 ; 부정적 시간과 긍정적 시간의 대비

작품 개관

임과 헤어진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며 간절히 재회를 바라는 **연정가**의 대표작임. 임 없는 동짓달 긴 밤을 잘라 두었다가(초장) 봄바람 이불 아래 간직하고(중장) 임 오신 밤에 펴겠다는(종장) **참신한 발상**으로 그리움을 표현함.

02 작품 분석

초장

> 동지(冬至)ㅅ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동짓달 긴 밤의 한가운데를 잘라 내어)

'동지'는 밤이 가장 긴 절기로, 임이 없어 길게 느껴지는 **부정적 시간**이며 화자의 **고독감**을 강조함. 보이지 않는 시간을 베어 낸다고 하여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함.

중장

> 춘풍(春風) 니블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 두었다가)

잘라 낸 시간을 따뜻한 '춘풍 니블' 아래 넣어 둔다고 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냄. '서리서리'는 긴 것을 둥글게 감아 두는 모양의 **음성 상징어(의태어)**임.

종장

>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정든 임 오신 날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임이 온 밤은 **긍정적 시간**으로, 간직한 시간을 펴서 임과의 밤을 길게 늘리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냄. '구뷔구뷔'의 의태어로 사랑을 의지로 이루려는 **적극적 태도**가 나타남.

감상 포인트

(가) 흥망이 유수하니~

자연물·자연 현상의 기능

'추초'는 쇠락한 고려 왕조, '석양'은 왕조의 몰락을 간접 표현함. 계절감('추초'=가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백성의 고통 비유는 아님).

감정의 객관화

화자가 자신을 '**객**'이라 표현하여 고려 멸망에 대한 슬픔을 한 걸음 물러서 객관화함.

독백적 어조

청자 없이 '-로다', '-노라'의 **영탄적 어미**로 혼잣말하듯 내면을 드러냄. 공간 대비는 나타나지 않음.

회고가의 보편적 특징

조선 건국 후 고려의 도읍지(개경)의 장소·사물을 보며 **망국의 한과 무상감**을 노래하는 회고가의 전형임.

(나) 국화야 너는 어이~

의인화와 예찬

국화를 '너'로 의인화해 **청자로 설정**하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국화의 절개를 예찬함(독백적 어조 아님).

시어의 대비

'**삼월동풍**'(좋은 시절, 다른 꽃들)과 '**낙목한천**'(시련, 홀로 핀 국화)의 대비로 국화의 지조를 부각함.

자연물의 상징성

유학자에게 자연은 추구할 윤리적 덕목을 상징함. 국화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임.

(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보이지 않는 '밤(시간)'을 베고, 넣고, 펴는 **사물처럼 형상화**함.

두 시간의 대비

임이 없는 **동짓달 긴 밤**(부정적 시간)을 줄여 임 오신 밤(긍정적 시간)을 늘리겠다는 발상임.

음성 상징어

'**서리서리**', '**구뷔구뷔**'의 의태어로 순우리말의 묘미를 살림(세 작품 중 (다)만 해당).

계절감

'동지'(겨울)와 '춘풍'(봄)의 계절감 있는 시어로 고독과 그리움을 강조함.

작품 비교 흥망이 유수하니 · 국화야 너는 어이 · 동짓달 기나긴 밤을

구분	(가) 원천석	(나) 이정보	(다) 황진이
화자/대상	고려 유신('객') / 만월대(옛 왕궁 터)	선비 / 국화	임과 이별한 여인 / 부재하는 임
정서/태도	망국의 슬픔, 무상감	국화의 절개 예찬	임에 대한 그리움, 재회 소망
어조/말하기 방식	독백적, 영탄적(-로다, -노라)	국화를 청자로 한 말 건네기, 예찬적	독백적, 애틋함
주요 표현	감정의 객관화('객'), 감각적 이미지	의인법·돈호법, 시어 대비	추상의 구체화, 음성 상징어
계절 시어	추초(가을), 석양	삼월동풍(봄) ↔ 낙목한천(겨울)	동지(겨울), 춘풍(봄)
공통점	계절감을 주는 시어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3장 6구의 평시조 형식		

04 고전시가 2학기 수업 자료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작자 미상

01 작품 해제

갈래	사설시조
성격	풍자적, 우의적, 해학적
화자/어조	두터비의 행태를 관찰하는 화자(종장은 두터비의 말) / 익살스럽고 비판적인 어조
주제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에 대한 풍자
특징	동물을 의인화한 우의적 표현 ; 상황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함 ; 종장에서 두터비의 자기 합리화를 직접 제시함

작품 개관

두터비·파리·백송골의 관계로 당대 지배층의 횡포를 **우의적**으로 풍자한 사설시조임. 약자(파리)를 물고 위세를 부리던 두터비가 강자(백송골)를 보고 놀라 자빠진 뒤, 오히려 제 날램을 자랑하는 모습을 통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세태를 비꼼.

02 작품 분석

초장

>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두터비(탐관오리)가 파리(힘없는 백성)를 물고 두엄(수탈한 재물) 위에 올라앉음. 백성을 **수탈**하며 위세를 부리는 모습임.

중장

> 백송골(白松鶻)이 떠 있거늘

백송골(상부의 중앙 관리, 강자)을 보고 섬뜩하여 달아나다 두엄 아래 자빠짐.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모습을 **희화화**함.

종장

> 모쳐라 날랜 나일세망정

두터비의 말로,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멍이 들 뻔했다며 **자화자찬**함. 실수를 덮는 **자기 합리화**로 해학성이 극대화됨.

(나) 어이 못 오던다~ 작자 미상

01 작품 해제

갈래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 과장적, 연정가
화자/어조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화자 / 임('너')에게 따져 묻는 원망 섞인 어조
주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특징	연쇄법·열거법·과장법으로 장애물을 나열함 ; 의문형 문장의 반복 ; 종장의 설의적 표현

작품 개관

오지 않는 임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묻는 사설시조임. 중장에서 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가상적으로 겹겹이 설정**하여 기다림의 답답함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종장에서 한 달 서른 날 중 하루도 없느냐며 **원망과 그리움**을 직설적으로 토로함.

02 작품 분석

초장

>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

오지 않는 이유를 임에게 거듭 물음. 의문형이지만 설의가 아닌 **질문**이며, 반복으로 답답함을 강조함.

중장

>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성→담→집→뒤주→궤로 점점 좁혀 가며 임을 결박하고 자물쇠로 잠갔느냐고 물음. **연쇄법·열거·과장**으로 그리움을 웃음으로 승화함.

종장

> 날 보라 올 하루 업스랴

한 달을 '셜흔 날'로 풀어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없겠느냐고 **설의**함. 원망·안타까움·그리움을 직설적으로 드러냄.

(다) 한숨아 세한숨아~ 작자 미상

01 작품 해제

갈래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 과장적, 애상적
화자/어조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화자 / 의인화된 한숨에게 말을 건네는 하소연조
주제	깊은 시름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움
특징	추상적 대상(한숨)의 의인화 ; 잠금 장치의 열거와 과장 ; 동일 구절 반복과 음성 상징어 활용

작품 개관

마음에서 나오는 **한숨**을 밖에서 들어오는 존재처럼 의인화하여 근심을 형상화한 사설시조임. 온갖 문과 잠금 장치로 막아도 한숨이 들어온다는 과장으로 시름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종장에서 한숨이 온 밤에는 잠 못 든다는 괴로움을 드러냄.

02 작품 분석

초장

> 네 어내 틈으로 들어오느냐

'한숨'을 '너'로 부르며 어느 틈으로 들어오는지 물음. 추상적인 근심을 **의인화**하여 구체화함.

중장

>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채웠는데

고모장지·세살장지·돌쩌귀·배목걸새 등 **잠금 장치를 열거**하며 문을 단단히 잠갔다고 함. 불가능한 일을 진지하게 시도하는 모습이 **해학적**임.

종장

>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한숨이 찾아온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여 깊은 시름(전전반측)을 솔직하게 드러냄.

감상 포인트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우의적 풍자

두터비=탐관오리, 파리=백성, 백송골=중앙 관리로, 동물 관계에 **지배층의 위계**를 빗댐.

허장성세

약자 앞에서 위세 부리다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고도 허세를 부리는 이중적 태도를 비판함.

해학과 희화화

'풀쩍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의 우스꽝스러운 동작 묘사로 **웃음을 유발**함.

사설시조의 형식

중장이 길어진 형태이며, 종장 첫 구 '모쳐라'(마침)는 시조의 종장 형식을 유지함.

(나) 어이 못 오던다~

가상적 장애물

무쇠 성·담·집·뒤주·궤·자물쇠는 실제가 아닌 상상으로, 임이 못 오는 이유를 **과장**하여 기다림의 절실함을 드러냄.

연쇄법과 점강법

앞 구절의 끝말을 이어받으며 공간을 **점점 좁혀** 리듬감과 해학성을 높임.

원망의 방향

임과 떨어진 문제의 원인을 **오지 않는 임**에게 돌리며, 임이 돌아오기를 바람.

사설시조의 특징

장형화된 중장, 일상적 사물, 쉬운 언어로 **이면적 자아**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함.

(다) 한숨아 세한숨아~

한숨의 의인화

내면의 근심인 한숨을 외부에서 침입하는 존재로 설정하여, 막을 수 없는 **시름의 깊이**를 강조함.

열거·과장

생활 속 문과 잠금 장치를 길게 늘어놓아 근심을 막으려는 노력을 과장하고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함.

반복과 음성 상징어

'네 어내 틈으로 들어오느냐' 반복, '뚝딱', '덜컥', '데굴데굴' 등으로 리듬감과 생동감을 줌.

원망의 대상

잠 못 드는 원인을 **한숨의 탓**으로 돌리며 한숨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함.

작품 비교 사설시조 3수

구분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나) 어이 못 오던다~	(다) 한숨아 세한숨아~
대상	두터비(탐관오리)	오지 않는 임('너')	의인화된 한숨('너')
화자의 태도	허장성세를 비판·조롱함	원망하며 임이 오기를 바람	원망하며 한숨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람
표현	동물의 의인화(우의), 희화화	연쇄법·열거·과장, 설의	의인화, 열거·과장, 반복, 음성 상징어
해학의 방식	두터비의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자기 합리화	임을 가두는 가상적 장애물 설정	한숨을 막으려 문을 잠그는 행동
공통점	사설시조로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으며 과장·해학으로 웃음을 자아냄		

05 현대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 맹세 조지훈

01 작품 해제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희생적, 영탄적, 맹세적
화자/어조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는 '나' / 간절하고 비장한 어조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맹세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
특징	촉각·시각 이미지의 대비 ; 설의적 표현(~어찌하리야, ~지니랴) ; 유사 구문 반복(4·9연, 5·10연의 '나는 울어라')

작품 개관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며 영원한 사랑과 희생을 다짐하는 시임. 임은 '일월'처럼 **거룩한** 절대적 존재이며, 임이 오는 것은 곧 더 나은 세상이 오는 것으로 읽힘. 뜨거운 열정 → 희생의 각오 → 영원한 사랑 → 가난한 마음과 피리 → 지조 → 간절한 그리움 순으로 시상이 전개됨.

02 작품 분석

1연

>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싸늘한 바위'와 '뜨거운 가슴'의 **촉각적 대비**로 어떤 시련에도 식지 않는 임에 대한 열정을 드러냄. '만년'이라는 불가능한 시간과 **설의적 표현**으로 사랑의 영원함을 강조함.

2~3연

> 마지막 한방울 피마저 불어 넣고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는 어둠 속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 화자는 자기 피를 불어 넣어 이들을 살리고 '해돋는 아침'에 죽겠다는 **희생적·의지적 태도**를 보임. '어둠'과 '해돋는 아침'의 시각적 대비로 밝음을 회복한 세상을 지향함.

4~5연

>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는 **가정적 상황**과 죽음-부활-죽음의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여 변치 않을 사랑을 형상화함. '거룩한 일월'의 임 앞에서 우는 모습은 임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간절함을 드러냄.

6연

>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마음이 가난하여 임에게 내보일 자랑도 선물도 없다고 한탄함. 설의적 표현으로 거룩한 임을 맞을 준비가 부족하다는 상황 인식을 드러냄.

7~8연

>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

화자가 지닌 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의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임. 피리의 '아픈 가락'에는 의로운 이들의 희생과 설움이 담겨 있으며, 이 가락이 임에게 닿기를 바라는 지조와 절개가 드러남.

9~10연

> 붉은 마음이 숯이 되는 날까지

4연과 유사한 구문으로 '붉은 마음 → 숯 → 재'의 변화를 제시함. 모습은 변해도 임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음을 강조하고, 5연의 '나는 울어라'를 반복하여 간절한 그리움으로 마무리함.

05 현대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나) 봄 오규원

01 작품 해제

갈래	현대시, 자유시, 산문시
성격	메타적(언어 탐구), 실험적, 경쾌함
화자/어조	대상을 부르고 명령하는 시인 '나' / 반말의 명령·권유 어조
주제	새로운 언어 사용의 가능성 탐구, 언어와 대상의 자유
특징	반복과 쉼표를 통한 리듬감 ; 1연 끝 '봄'을 2연 첫 문장으로 연결 ; 명령형 어조

작품 개관

표면적으로는 봄날의 생명력 넘치는 풍경을 그리지만, 심층적으로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구한 시임. 1연에서는 언어로 대상에 자유를 주려 하고, 2연에서는 봄을 '자유'이자 '지옥'으로 바꿔 부르며 대상을 언어로 구속하는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야 함을 드러냄.

02 작품 분석

1연 (1)

>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 라일락, 별, 개똥 등 사소한 주변 대상을 '저기 저'로 하나씩 불러냄. 각 대상의 **개별성**에 주목하며 이를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1연 (2)

>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언어에 자유를 주어 대상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고 함. 자유로운 언어로 대상을 구속에서 해방하려는 지향을 보이며 '그래 봄이다'로 맺음.

2연 (1)

> 봄은 자유다

1연 끝의 '봄'을 이어받아 봄 = 자유로 규정함. '~고 싶은 놈 ~고'의 반복으로 대상들이 각자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 줌.

2연 (2)

> 그래 봄은 지옥이다

봄을 '꽃피는 지옥'으로 바꿔 부르는 **새로운 표현**을 시도함. 이름이 달라져도 꽃은 피고 별은 반짝인다는 데서 언어로 대상을 규정하는 것의 **한계**를 드러내고,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로 획득한 자유를 선언함.

감상 포인트 (가) 맹세

이미지의 대비
'싸늘한 바위/뜨거운 가슴', '어둠/해돋는 아침'은 대상의 양면성이 아니라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부각**하는 장치임.

가정과 불가능한 상황
'다 잃고라도',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등으로 **영원한 사랑의 의지**를 강조함.

반복과 수미 구조적 호응
4·9연의 유사 구문, 5·10연 끝의 **'나는 울어라'** 반복으로 정서를 강조함.

피리와 '아픈 가락'
의로운 사람들의 **희생과 설움**을 담은 가락이며, 화자는 이것을 살아남은 사람이 아닌 **임**이 듣기를 바람.

화자의 시선
'꽃송이'를 '어둠에 창백한' 존재로 보는 등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

감상 포인트 (나) 봄

반복과 쉼표
'저기 저 ~', '~고 싶은 놈 ~고' 등 같은 표현의 반복과 쉼표로 **리듬감**을 형성함.

시어의 연결
1연 끝 '그래 봄이다'와 2연 첫 '봄은 자유다'를 **'봄'**으로 이어 봄이 곧 자유라는 의미를 드러냄.

'지옥'이라는 명명
하나의 대상을 다른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함.

대상 중심의 시선
화자의 해석보다 **대상들 각각의 모습**이 두드러짐. '담벽'은 공간이 아니라 주목하는 대상의 하나임.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
언어는 대상을 파악하게 하지만 대상을 **구속**하기도 함. 시인은 기존 관습을 벗어난 언어로 이를 넘어서려 함.

작품 비교 맹세 · 봄

구분	(가) 맹세	(나) 봄
화자/주체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는 '나'	주변 대상을 언어로 부르는 시인 '나'
지향/바람	임의 귀환, 어둠을 벗어난 더 나은 세상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누리는 자유
태도	자신을 바치는 희생적·의지적 태도	대상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는 해방적 태도
시선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 중심	대상들 각각의 모습(개별성) 중심
표현	대비되는 이미지, 설의법, 유사 구문 반복	반복과 쉼표의 리듬, 명령형, 시어 연결
공통점	**반복 표현으로 운율과 의미를 강조하고 화자의 소망(바람)을 드러냄**	

(가) 동물원의 오후 조지훈

01 작품 해제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판적, 애상적, 고백적
화자/어조	나라 잃은 시인 '나' / 비통하고 애상적인 어조
주제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식민지 시인의 비애
특징	주객전도의 상황 설정 ; 구속의 이미지(쇠창살·철책·창살) ; 비유를 통한 감각적 정서 표현(통곡과도 같은 낙조) ; 말줄임표로 여운 형성

작품 개관

나라 잃은 시인의 비애를 동물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드러낸 시임. 화자는 현실에서 하소연할 곳 없는 슬픔을 달래려 동물원을 찾지만, 오히려 철책 안의 짐승들이 자신을 구경하는 듯한 **주객전도**를 겪으며 자신이 갇힌 존재임을 자각함. 위로를 구하는 마음 → 처지의 자각 → 통곡과 같은 비애로 시상이 전개됨.

02 작품 분석

1연

> 짐승에게라도 하소해야지

시름에 젖은 화자가 동물원을 찾는 이유가 제시됨. 사람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은 마음을 하소연할 곳 없는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며, 동물원은 위로받고자 찾은 공간임.

2연

>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며 갇힌 짐승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함께 울고 싶은 심정을 드러냄.

3연

> 혼자서 숨어 앉아 시를 써도

시를 숨어서 써야 하고 읽어 줄 사람도 없다는 데서 **창작의 자유를 빼앗긴** 일제 강점기 시인의 처지가 드러남. '쇠창살'은 단절·속박의 이미지로, 그 앞에서 짐승들에게 시집을 읽어 주는 모습이 처연함.

4연

>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구경하는 자와 구경당하는 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주객전도**가 일어남. 짐승들이 창살 틈으로 화자를 들여다보며 '나라 없는 시인'이라 속삭인다는 표현으로, 화자는 위로받기는커녕 망국민으로서의 처지를 절실히 재인식함. 말줄임표로 여운을 남김.

5연

> 통곡과도 같은 낙조

사람 없는 동물원의 오후, 지는 해의 **하강 이미지**에 통곡하고 싶은 비통한 정서를 투영함. 비유를 통해 화자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며 마무리함.

(나)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김현승

01 작품 해제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사색적, 예찬적, 감각적
화자/어조	밤의 의미를 성찰하는 '나' / 차분하고 긍정적인 어조
주제	생명을 키우고 상상력을 북돋는 밤의 풍요로운 힘
특징	과실 '밤[栗]'과 시간 '밤[夜]'의 이미지 중첩 ; 공감각적·관능적 이미지 ; 낮(이성)과 밤(상상)의 대비 ; 말줄임표로 여운 형성

작품 개관

시간 '밤[夜]'을 과실 '밤[栗]'과 겹쳐 **성장과 생명**의 시간으로 형상화한 시임. 밤은 어린것들을 품어 키우고, 이성적 분석의 낮과 달리 시인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며, 마침내 껍질을 벗고 새벽으로 나아가는 **재생과 창조**의 시간으로 그려짐.

02 작품 분석

1연

밤의 내부는 달도록 고요하다 밤을 '무르익은 과실'에 빗대어 그 내부가 꽉 찬 풍요로운 시간임을 드러냄. '달도록 고요하다'는 미각과 청각을 결합한 **공감각적** 표현으로, 과실과 시간의 이미지를 **중첩**시킴.

2~3연

작은 벌레와 같이 잠든 어린것들의 숨소리가 고요 속에 파묻힌다는 것은 밤이 연약한 생명을 감싸 안아 **성장**시킴을 뜻함(소멸이 아님). 별들과 화자가 자연의 구조에 못을 박는다는 표현으로 밤의 질서와 생명력을 드러냄.

4연

상상으로 저들의 나래를 '해체나 분석'은 낮의 **이성적 사유**를, '상상'은 밤의 **감성적 사유**를 나타냄. 분석에 무딘 시인들에게 밤은 토의가 끝난 뒤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하여 창작 능력을 북돋는 시간임.

5연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 꽃이 떨어져 열매 속에 아름다움을 감추듯, 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생명을 내면에 갈무리함. 말줄임표로 여운을 줌.

6연

밤의 껍질을 / 서서히 탈피케 밤이 새벽으로 바뀌는 과정을 과실이 '껍질'을 벗는 일로 표현한 **낯설게 하기**임. 밤의 능동적 힘이 새벽을 여는 성장·재생의 의미를 완성함.

감상 포인트 (가) 동물원의 오후

공간의 의미

현실(시를 숨어 써야 하는 공간) → 동물원(위로를 구하는 공간) → 철책 안(구속된 처지)으로 연결되며, 화자는 동물원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철책 안의 짐승과 같은 처지임.

주객전도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에서 관찰자와 대상이 뒤바뀌어, 자유를 구속당한 식민지 지식인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냄.

구속의 이미지

'쇠창살', '철책', '창살'이 이어지며 억압과 단절의 이미지를 집중시킴.

'오후'와 '낙조'

현실의 질서가 강요되어 시인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시간이며, 낙조는 화자의 비통함을 환기함. 위로받는 시간이 아님에 유의.

감상 포인트 (나)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이미지의 중첩

과실 '밤[栗]'과 시간 '밤[夜]'을 겹쳐 '밀도', '달도록', '껍질', '탈피' 등으로 신선감을 형성함.

낮과 밤의 대비

해체·분석·토의(이성, 낮)와 상상(감성, 밤)을 대비하여 밤을 시인의 감수성이 활성화되는 시간으로 그림.

'밤'의 의미

어린 생명과 시인을 성장시키는 생명과 창조의 시간이며, 위축·소멸의 시간이 아님.

제목의 의미

'영양이 풍부하다'는 밤이 생명을 기르고 상상력을 키우는 풍요로운 시간임을 압축함.

작품 비교 동물원의 오후 ·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구분	(가) 동물원의 오후	(나)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화자/주체	나라 잃은 식민지 시인 '나'	밤의 의미를 성찰하는 '나'(시인)
시간의 의미	'오후'(낙조): 정체성이 억압되는 비통한 시간	'밤': 상상력이 확장되고 생명이 성장하는 시간
태도/정서	현실에 대한 비애, 통곡하고 싶은 심정	밤의 생명력에 대한 긍정과 예찬
표현	주객전도, 구속의 이미지, 하강 이미지(낙조)	과실·시간 '밤'의 중첩, 공감각, 낮과 밤의 대비
공통점	**시인으로서의 처지·정체성을 시간적 배경과 연결함 ; 말줄임표로 끝맺는 시행으로 여운을 줌**	

(가) 성에꽃 최두석

01 작품 해제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현실적, 비판적, 서정적, 애상적
화자/어조	새벽 시내버스에서 성에꽃을 바라보는 '나' / 애정 어린 관조에서 안타까움으로 바뀌는 어조
주제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연민
특징	평범한 사물(성에)에 새로운 의미 부여 ; 역설적 표현(차가운 아름다움) ; 설의·영탄적 어조 ; 마지막 부분의 장면 전환

작품 개관

겨울 새벽 시내버스 차창의 성에를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피워 낸 **꽃**으로 인식한 시임. 화자는 성에꽃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서민들의 **애환과 열정**에 공감하고, 성에꽃을 지운 창에서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를 떠올림. '엄동 혹한'과 친구의 처지를 통해 1980년대의 **암울한 시대 현실**을 함께 드러냄.

02 작품 분석

[A] 1~4행

> 엄동 혹한일수록 / 선연히 피는 성에꽃

새벽 시내버스 차창에 핀 성에를 '찬란한 치장'으로 표현함. '엄동 혹한'은 **암울한 시대 상황**을 암시하며, 추울수록 선명해지는 성에꽃은 시련 속에서 더 빛나는 서민들의 삶을 상징함.

[B] 5~10행

> 입김과 숨결이 / 간밤에 은밀히 만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를 **열거**하여 평범한 서민들을 제시함. 이들의 입김과 숨결이 모여 피운 성에꽃에서 '기막힌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서민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냄.

[C] 11~16행

>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성에꽃에 심취함. '차가운 아름다움'은 성에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막막한 한숨'(현실의 힘겨움)과 '정열의 숨결'(삶의 열정)을 묻는 **설의**로 서민의 삶에 공감함.

[D] 17~19행

> 성에꽃 한 잎 지우고 / 이마를 대고 본다

성에꽃을 정성스레 지우는 행위는 무력감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함께 느끼려는** 태도이자, 창 너머를 보려는 행위임. 이를 계기로 장면이 전환됨.

[E] 20~22행

>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창에 비친 '푸석한 얼굴'에서 민중을 위한 삶을 실천하다 갇힌 **친구**를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드러냄. **돈호법**으로 시를 맺으며 억압적 시대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함.

(나) 귀뚜라미 나희덕

01 작품 해제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의지적, 성찰적, 소망적
화자/어조	의인화된 '귀뚜라미'(나) / 담담하면서도 간절한 소망의 어조
주제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
특징	자연물(귀뚜라미)을 화자로 설정한 의인화 ; '매미'와 '귀뚜라미', 여름과 가을의 대조 ; 의성어(청각적 이미지) ; 의문형 종결의 변주(8행·14행)

작품 개관

의인화된 **귀뚜라미**가 화자로 등장하여 현재의 처지와 소망을 노래한 시임. 여름의 **매미 떼** 소리에 묻힌 귀뚜라미의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지만, 화자는 부정적 현실을 견디며 살아 있음을 알림. 맑은 가을이 오면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며 마무리됨.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 싶은 시인의 소망으로도 읽힘.

02 작품 분석

1~2행

>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높은 가지의 **매미**는 주류적·지배적 존재로, 귀뚜라미의 소리를 묻어 버림. '아직은'이라는 부사에서 울음이 언젠가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드러남.

3~6행

>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차가운 바닥',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은 생명력이 없는 **부정적 공간**으로 '높은 가지'와 대조됨. '그러나'를 통해 고통을 견디며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임.

7~8행

>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귀뚜르르 뚜르르'의 **의성어**로 존재를 알리는 '타전소리'를 표현함. 의문형으로 누구의 마음도 울리지 못할 것 같은 **회의적** 태도를 드러냄.

9~14행

>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부정적 현재)과 '맑은 가을'(밝은 미래)이 대조됨. 같은 의문형이지만 여기서는 울음이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을 강조함.

감상 포인트 (가) 성에꽃

성에꽃의 의미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든 꽃으로, 고단한 삶의 **애환과 열정**이 응축된 아름다움임.

엄동 혹한

계절적 배경이자 자유가 억압된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암시함. 성에꽃과 대비되어 의미를 드러냄.

역설적 표현

'차가운 아름다움'은 차가운 성에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모순을 통해 서민 삶의 가치를 부각함.

감각적 표현

'찬란한 치장', '섬세하고도 차가운' 등 시각·촉각 이미지로 성에꽃의 속성을 드러냄.

감상 포인트 (나) 귀뚜라미

울음과 노래

'울음'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하는 현재의 소리, '노래'는 타인의 마음을 울리는 지향점임.

매미와 귀뚜라미

지배적인 매미 떼와 소외된 귀뚜라미의 **대조**로 화자의 처지와 의지를 부각함. 매미에 감정 이입이 된 것은 아님.

계절의 대비

여름은 소망 실현이 어려운 현재, 가을은 소망이 이루어질 미래로 기능함.

의문형의 변주

8행은 회의, 14행은 기대를 담아 같은 형식으로 다른 정서를 드러냄.

시인의 소망

귀뚜라미의 '노래'는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시**로 읽을 수 있음. 소외된 자리에서도 타인과 소통하려는 시인의 바람이 담김.

작품 비교 성에꽃 · 귀뚜라미

구분	(가) 성에꽃	(나) 귀뚜라미
화자/주체	새벽 버스에서 성에꽃을 바라보는 '나'	의인화된 귀뚜라미 '나'
배경/상황	엄동 혹한의 겨울 새벽, 시내버스 안	매미 떼가 울어 대는 여름, 지하도 벽 틈
태도/정서	서민의 삶에 대한 애정·연민,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부정적 현실을 견디며 감동을 주는 노래를 소망함
표현	역설(차가운 아름다움), 열거, 설의, 돈호법	의인화, 의성어, 시어·계절의 대조, 의문형 변주
공통점	**감각적 표현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함**	

08 현대소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무성격자 최명익

01 작품 해제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심리 소설
성격	사실적, 성찰적, 비판적, 심리적
배경	일제 강점기(1930년대) / 위독한 아버지가 있는 고향 집
주제	근대 지식인의 무성격한 내면과 자기 성찰
특징	정일에 초점화된 서술로 내면 심리를 세밀하게 드러냄 ; 상속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함께 배치해 욕망과 연민을 대비함 ; 관찰하는 자신마저 대상화하는 중층적 심리 묘사

작품 개관

동경 유학생 출신 교사 정일은 현실에 무게와 고통을 느끼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지식인임. 아버지 만수 노인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귀향하고, 지문은 매부 용팔이 상속세를 피할 방법을 내밀며 위임장에 도장을 받는 장면과, 죽음과 사투하는 아버지에게 흐르는 물을 보여 주는 장면임. 정일은 돈만 아는 속물로 경멸하던 아버지에게서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발견하고, 무성격한 자신을 고수하는 것이 자기기만임을 깨닫게 됨.

02 작품 분석

장면 1

산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용팔이 상속 재산을 셈하는 산판알을 유심히 보는 자신을 의식하다가 용팔과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붉어짐. 재산을 넘보는 용팔을 경멸하면서도 자신 역시 **속물적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드러냄.

장면 2

이 소인 놈! 하는 의분 같은 심열 상속세를 안 물 방법을 제안하는 용팔의 이해타산적 태도와 '발라 놓은 듯한' 웃음에 분노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낌. 그러나 곧 자기 얼굴에 웃음이 흐름을 깨닫고 심열을 신경 쇠약 탓으로 돌리며 **심리 전환**이 일어남.

장면 3

자 칠 대로 치우 결국 조급히 도장을 내주며 용팔의 뜻에 동의함. 실없이 웃는 자신을 듣고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며 말과 표정을 잃음. 자기 행동을 다시 관찰·분석하는 **내면의 대상화**가 나타남.

장면 4

그걸 못 해? 내 하마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을 불러내려다 말이 나오지 않아 주저함. 용팔을 장난을 대신 하러 나서는 동무에 빗대어 **적극적인 용팔과 행동을 주저하는 정일**이 대조됨. 결과를 실험처럼 기다리다 아버지의 격분한 고함을 들음.

장면 5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죽기 싫어하는 아버지를 눈 찌푸려 보는 자신은 해탈이 아니라 살려는 의지력이 없을 뿐이라고 분석함. 삶을 회의한 적 없는 아버지이기에 죽음과 싸울 수 있다고 평가하며, 그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자신을 발견함.

장면 6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 물을 못 마시는 아버지의 요구가 **물그릇 → 어항 → 흐르는 물줄기**로 심화되고, 정일은 대접으로 물을 쏟아 폭포를 만들어 줌. 물줄기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황홀한 눈에서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읽고 눈물을 흘림.

주요 인물

● 정일
위독한 아버지를 보러 귀향한 지식인 아들.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나 벗어나지 못하고, 행동을 주저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분석함.

● 만수 노인(아버지)
죽음에 가까운 고통 속에서도 물을 보고 싶어 할 만큼 삶에 강하게 집착함. 정일에게 삶의 의지를 새롭게 생각하게 함.

● 용팔
만수 노인의 사위. 상속세를 피할 방법을 제안하며 위임장에 도장을 받는 계산적·속물적 인물. 정일의 숨은 욕망을 자극함.

감상 포인트

서술 방식
3인칭 서술자가 **정일에 초점화**하여 그의 시선과 내면 독백 중심으로 서술함. 사건은 정일이 보고 들은 범위로 제한적으로 제시됨(중문 안 대화는 고함 소리로만 전달).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
대상을 관찰하고 반응하며, 그 반응을 분석하는 자신까지 다시 바라봄. '~자신을 의식하며', '~자기를 발견하는' 같은 표현이 **내면 대상화**의 단서임.

정일의 이중성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면서도 산판알에 눈길이 가고 도장을 내줌. 분노 뒤에 흐르는 웃음은 불쾌감 무마가 아니라 자신도 욕망에 구속되어 있음을 드러냄.

용팔과의 대조
상속세를 피하려는 계산적·적극적 생활인 용팔과, 행동을 **주저**하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정일이 대비됨.

물의 의미
㉡ '서늘한 감각'은 물을 못 마시는 아버지의 육체적 갈증 해소 욕구이자 **생에 대한 갈망**임. 물그릇·어항·물줄기로 점층되며 갈망의 심화를 보여 줌.

아버지에 대한 인식 변화
경멸하던 아버지에게서 처음 보는 '황홀한 눈'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림. 살려는 의지가 없는 자신과 대비되며 아버지의 **삶의 의지**를 인정하게 됨.

09 현대소설 2학기 수업 자료

폐어인 최명익

01 작품 해제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심리 소설
성격	비극적, 성찰적, 심리적
배경	일제 강점기 말기 / 성문 밖 성벽 근처
주제	병든 지식인의 삶의 의지와 절망 사이의 내적 갈등
특징	3인칭 서술자가 현일과 병수의 대화와 속마음을 함께 전달함 ; 내적 독백으로 현일의 내면 의식을 직접 드러냄 ; '폐어'의 비유로 절망적 처지를 상징화함

작품 개관

폐병을 앓는 지식인 현일은 길에서 옛 동료 교사 도영과 제자 병수를 만남. 지문은 실생활을 두려워하는 병수에게 **의지와 패기**를 권하다가 그것이 병의 '반동'이 아니냐는 반문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장면, 이어 도영이 각혈하자 병수를 물리고 홀로 돌보며 자신을 **죽어 가는 폐어**로 인식하는 장면임.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가 서로 실망하면서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이 함께 드러남.

02 작품 분석

장면 1

실생활에 나서기가 무서워서 그러죠 병수는 실생활에 나서기 두려워 학창 생활에 머물려 함. 현일은 이를 '불안이라는 유행병'으로 보며 젊은이답게 **의지와 패기**를 가지라 권하지만, 대화가 되풀이되자 불쾌하고 우울해함.

장면 2

선생의 신병과 정신적 타격의 반동 병수는 현일의 의지와 패기가 병과 절망에 대한 **반동**이 아니냐고 냉소적으로 반문함. 곧 말이 지나쳤다고 후회하며, 과거 현일을 숭배하던 기억과 지금의 자기 태도를 견주어 쓸쓸해함.

장면 3

소크라테스가 아닌 범인의 본능 현일은 병수의 말에 아픈 타격을 받음. 생명의 위험 앞에서 인생을 저주하고 싶던 범인의 감정을 이론으로 극복하려 했기에 수신 강의가 열을 띠었음을 깨닫고, 병수의 말이 억측만은 아님을 **성찰**함.

장면 4

결국 용기 문제겠지요 현일은 지적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과 달리 젊은 병수에게는 의지와 패기가 필요하다고 함. 병수는 불안의 근원이 용기 부족보다 **사상과 신념의 부재**에 있다고 속으로 생각함.

장면 5

이런 더러운 피에 왜 손을 적시려나 도영이 각혈하자 현일은 다가서는 병수를 노기 띤 목소리로 밀어내고 직접 피를 닦음. 병든 자의 세계에서 제자를 떼어 놓으려는 **보호와 희생**의 태도가 드러남. 해 질 녘 그림자와 바람이 죽음의 분위기를 부각함.

장면 6

죽어 가는 폐어에게 물도 공기도 현일은 절망과 패기를 번갈아 오가며 버텨 온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두 호흡 기능을 다 잃은 **폐어**와 같다고 독백함. 돌아온 병수는 도영과 현일을 차에 태우고, 선생의 말을 되새김.

주요 인물

● 현일
폐병을 앓는 지식인이자 전직 교사. 의지와 패기를 강조하나 그것이 절망의 반동일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죽어 가는 폐어로 인식함.

● 병수
현일의 옛 제자. 실생활을 두려워하는 청년 세대의 불안을 드러내며 현일의 말을 냉소적으로 반문하지만, 곧 후회하고 선생의 마음을 헤아리려 함.

● 도영
현일의 옛 동료 교사로 폐병 환자. 약으로 쓸 구렁이와 지렁이를 잡다 각혈하며, 병든 지식인의 비극을 보여 줌.

감상 포인트

서술 방식
작품 밖 3인칭 서술자가 현일과 병수의 대화와 각자의 **속마음**을 번갈아 전달함. 병수의 후회, 현일의 자기 성찰이 함께 서술됨.

내적 독백
'나 역시 이 세상과는 벌써 인연이 멀어진 사람', '무엇이 남았으랴' 등 현일의 **내적 독백**을 직접 제시해 절망적 내면 의식을 드러냄.

'폐어'의 상징
아가미와 폐 두 호흡을 하는 폐어가 두 기능을 다 잃은 모습은 **패기도 잃고 절망조차 남지 않은** 현일의 비극적 처지를 상징함. 제도 비판이 아닌 내면적 절망이 중심임.

의지와 절망의 반복
현일은 절망을 견디려 철학적 명상으로 낙관과 패기를 되찾았다가 죽음을 의식하며 다시 절망함. '마음의 탄력'은 심적 안정이 아니라 **일시적 몸부림**임.

세대 간 의식
기성세대 현일은 청년에게 실망하면서도 **책임 의식**과 더 나은 삶에 대한 바람을 지님. 청년 병수는 냉소적이면서도 선생의 생각을 이해하려 함(ⓜ).

10 고전소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상사동기 작자 미상

01 작품 해제

갈래	고전 소설, 한문 애정 소설(애정 전기 소설의 전통 계승)
성격	애정적, 낭만적, 현실적
배경	조선 시대 한양의 일상 공간(길거리, 노파의 집 = 상사동)
주제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는 남녀의 열렬한 사랑
특징	조력자의 계책을 통해 애정 서사가 전개됨 ; 일상에 밀착된 배경으로 현실성 강화 ; 궁녀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한 갈등 제시

작품 개관

선비 **김생**이 길에서 회산군 댁 시비 **영영**을 보고 첫눈에 반하면서 사건이 시작됨. 지문은 노비 막동의 계책으로 영영의 이모인 노파에게 접근한 김생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노파가 **단오**에 영영을 불러낼 방법을 제시하는 초반부 장면임. 이후 두 사람은 잠시 만나지만 헤어지고, 김생이 과거 급제 후 주변의 도움으로 영영과 재회하여 사랑을 이룸. 「영영전」, 「회산군전」으로도 불리며, '상사동'은 노파가 사는 동네 이름임.

02 작품 분석

장면 1

사모하는 이라도 있으신지요? 울적해하는 김생의 모습을 보고 노비 **막동**이 근심의 원인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짐작함. 김생이 사실대로 털어놓음으로써 애정 문제가 표면화됨. 막동은 주인의 처지를 헤아리는 눈치 빠른 인물로 제시됨.

장면 2

마륵의 계책을 올릴 테니 막동이 술과 안주(주효)를 차려 **가상의 손님**을 전별하는 척하고, 남은 음식을 노파에게 대접하는 계책을 제안함. '고마움 → 감격 → 의문'의 단계로 노파의 마음을 열어 김생이 **흉금**을 털어놓을 기회를 만들려는 것임. 한 식경 후, 다음 날 등 **시간 표지**로 계획의 추이가 드러남.

장면 3

내 일이 잘 되겠구나! 김생은 계책을 그럴듯하게 여기고 즉시 실행함. 첫눈에 반한 여인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서 **감정에 충실한 인물**임이 드러남.

장면 4

푸른 적삼에 붉은 치마 (중략 후) 김생이 노파에게 홍화문 앞길에서 본 낭자의 외양을 자세히 묘사하고, 그 뒤를 따라 노파의 집에 이르렀음을 고백함. 그날 이후 마음이 혼미하고 낯빛이 파리해질 만큼 **상사(相思)의 괴로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냄.

장면 5

이 애는 회산군 댁 시비예요 노파가 그 여인이 죽은 언니의 딸 영영임을 깨닫고, 영영이 궁에서 나고 자란 **회산군 댁 시비**라 다시 만나기 어렵다고 설명함. 회산군이 소실로 삼으려 했으나 부인의 질투(**하동의 사자후**)로 못 하고 있다는 사연과, 한식 제사 덕에 잠시 나왔던 사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됨.

장면 6

나는 필시 죽겠구나! 김생은 만남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하늘을 우러러 절망함. 노파는 단오에 언니의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께 영영의 반나절 말미를 청하는 **방법**을 제시함. 김생은 이를 견우·직녀가 만나는 칠석에 빗대어 기뻐하며 희망을 품음.

주요 인물

● 김생
재주가 뛰어난 선비. 길에서 본 영영을 사모해 상사병에 가까운 괴로움을 겪으며, 계책을 즉시 실행하는 감정에 충실하고 적극적인 인물.

● 영영
회산군 댁 시비이자 노파의 조카. 자색뿐 아니라 마음가짐·몸가짐, 음률과 문장까지 뛰어나나 신분적 제약으로 외출이 어려움.

● 막동
김생의 노비. 주인의 근심을 알아채고 노파의 환심을 사는 계책을 내는 영리한 조력자.

● 노파
영영의 이모. 김생의 후의를 입고 사연을 들은 뒤, 영영의 처지를 설명하고 단오 제사를 핑계로 만남을 주선하려는 조력자.

● 회산군 부인
질투가 심해 회산군이 영영을 소실로 맞지 못하게 하며, 영영의 외출을 제약하는 장애 인물.

감상 포인트

조력자(보조적 인물)의 적극적 개입

막동은 노파에게 접근할 계책을, **노파**는 영영을 불러낼 방법을 제시함. 보조적 인물이 서사 진행을 주도해 전대 소설보다 **현실성**이 강화됨.

㉠ 계책과 ㉡ 방법의 기능

막동의 계책은 가상의 손님을 내세워 김생이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 함. 노파의 방법은 제사를 명분으로 김생이 **영영과 만날 기회**를 얻게 함.

신분적 한계와 사회적 관습

영영은 궁에서 자란 **시비(궁녀)**로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않음. 회산군과 부인이라는 **권력적 장애**가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갈등 요인임.

일상적 배경

길거리, 노파의 집, 한식·단오의 제사 등 **일상에 밀착된 시공간**에서 만남이 이루어짐. 환상적 요소 없이 현실적 방법으로 결연을 꾀함.

표현상 특징

막동의 계책에서 **시간 표지**로 사건 추이를 드러냄. '하동의 사자후'는 부인의 질투를 **고사**에 빗댄 표현이고, '천상의 7월 7일'은 견우·직녀 설화에 기대어 만남의 기쁨을 강조함.

(나) 금령전 작자 미상

01 작품 해제

갈래	고전 소설, 영웅 소설(설화적 요소가 짙은 전기 소설)
성격	영웅적, 신이적, 전기적
배경	중국 / 남쪽의 큰 산, 요귀의 소굴(남전산 봉래동 금선수도부)
주제	금방울(금령)과 해룡의 활약상
특징	사물(금방울)이 의지를 지닌 조력자로 등장 ; 초월적 존재의 개입과 변신 등 비현실적 요소가 많음 ; 비유적·감각적 표현으로 긴박한 상황 묘사

작품 개관

용녀가 죄를 지어 **금방울**의 탈을 쓰고 태어난 금령이 남자 주인공 **장해룡**을 도와 괴수를 퇴치하고, 액운이 다한 뒤 탈을 벗고 해룡과 부부가 되는 이야기임. 지문은 금령의 인도로 산에 든 해룡이 요귀에게 삼켜진 금령을 구하러 소굴에 들어가, **금선 공주**의 도움으로 요귀를 죽이고 갇힌 이들을 구하는 장면임. (가)에 따르면 현실 논리보다 **초현실적 존재의 활약**을 극대화한 작품임.

02 작품 분석

장면 1

> 금령이 굴러 길을 인도하였다

길을 잃은 해룡을 금령이 인도함. 금털 돋친 짐승이 **벽력같은 소리**와 함께 덤비자 금령이 막다가, 아홉 머리로 변한 짐승에게 삼켜짐. 비유적·감각적 표현으로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 줌.

장면 2 [A]

> 어찌 금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낙담한 해룡에게 구름 속 목소리가 금령을 구하라고 일깨움. **초월적 존재의 개입**으로 해룡이 소굴에 들어가는 계기가 마련되나, 그 근거가 따로 설명되지 않음.

장면 3

> 홀연 천지가 명랑하고

무기(**촌철**)가 없음에도 금령의 은혜를 갚으려 위험을 무릅씀. 어둠을 지나자 갑자기 밝아진 주변과 '남전산 봉래동', '금선수도부'라는 지명으로 **신비로운 공간**에 진입했음을 강조함.

장면 4

> 벽에 걸린 보검을 갖다가

금령을 삼킨 짐승이 피를 토하며 앓는 중에 미인이 보검을 건네고, 해룡이 요귀를 찔러 죽임. 정체는 **금 터럭 돋친 암퇘지**였고 가슴에서 금령이 굴러 나옴.

장면 5

> 천자의 외동딸 금선 공주

여자들은 요귀에게 잡혀 온 피해자이며, 보검을 준 이는 6년 전 잡혀 온 **금선 공주**임이 밝혀짐. 공주는 고국에 돌아가 부모를 볼 수 있게 된 것을 사례하며 통곡함.

(다) 심청전 작자 미상

01 작품 해제

갈래	고전 소설, 판소리계 소설
성격	신이적, 효행적, 교훈적
배경	용궁(수궁) → 인당수 → 천자의 궁궐 화단
주제	심청의 효심과 효행
특징	인신공희 설화, 효행 설화 등을 바탕으로 함 ; 옥황상제·사해용왕 등 초월적 존재가 운명에 개입함 ; 서술자의 개입과 환상적 소재(꽃송이, 오색 무지개)가 나타남

작품 개관

판소리 「심청가」가 소설로 정착된 작품으로, 심청의 출생과 성장, **죽음과 재생**, 부녀 상봉과 심 봉사의 개안이 중심을 이룸. 지문은 아버지의 개안을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 옥황상제의 명으로 **꽃송이**에 담겨 인간 세상에 돌아오고, 천자와 혼인해 **황후**가 되는 장면임. 이후 맹인 잔치를 통해 아버지와 재회하고 아버지가 눈을 뜸.

02 작품 분석

장면 1 [B]

> 인당수로 돌려보내어

옥황상제가 사해용왕에게 명하자 용왕이 심 소저를 **큰 꽃송이**에 넣어 인당수로 보냄. **상제 → 용왕**으로 이어지는 환상계의 위계 속에서 현실계 귀환이 이루어짐.

장면 2

>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기에

심 소저는 용왕의 은혜에 감사하며 수궁과 작별함. 환상계와 현실계가 각각 **독립성**을 지니면서도 연결된 공간임이 드러남.

장면 3

> 천신의 조화요 용왕의 신령이었다

꽃봉이 순식간에 인당수에 떠오름. 서술자가 직접 논평하며, 바람과 비에도 끄떡없는 꽃봉의 모습(ⓒ)으로 **초월적 특성**을 부각함.

장면 4

> 출천 효녀 심 소저는

큰 이익을 얻은 뱃사람들이 용왕에게 제를 지낸 뒤 심 소저의 혼을 위로함. 자신들의 이익과 심청의 희생을 대비하며 **연민**을 드러내고, 수레바퀴만 한 꽃을 건져 냄.

장면 5

> 너희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중략 후) 밝은 달과 산들바람 속 **강선화**가 벌어지며 용녀가 내다보다 숨음. 꽃봉 속에서 심 소저와 용궁 시녀를 발견한 천자는 이를 **상제가 보낸 인연**으로 여김.

장면 6

> 천만고에 없는 일이니

천자가 소저를 황후로 봉하고 혼례를 특별히 마련하게 함. '위엄이 이 세상에서 처음'이라는 **서술자의 개입**으로 혼례의 성대함을 강조함.

감상 포인트 (나) 금령전

기이성 ① 비현실성

금령이 스스로 길을 인도하고 해룡을 막아 주는 등 **사물이 주체적 의지**를 지님. 짐승의 변신, 구름 속 목소리 등 **초현실적 존재**가 현실 논리와 무관하게 활약함.

기이성 ② 극적 전개

금령의 희생 → 짐승이 갑자기 피를 토함 → 미인의 보검 전달 → 요귀 처치로 **위험에서 평온**으로 급변함.

조력자의 도움

해룡은 **금령**과 **금선 공주**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함. 금령은 주인공이면서도 조력자의 모습을 강하게 지님.

[A]의 성격

구름 속 목소리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해룡을 이끎. (가)의 17세기 소설처럼 설화의 흔적이 남은 **비현실성 극대화**의 예임.

표현상 특징

'벽력같은 소리', '주홍 같은 입' 등 **비유적·감각적 표현** 사용. '차설'은 장면을 전환하는 **상투적 표현**임.

감상 포인트 (다) 심청전

기이성 ① 극단적 성격·극적 전개

아버지 개안을 위해 죽음을 택한 **극단적 효심**과, 죽음에서 재생을 거쳐 **황후**가 되는 극적 전개가 기이성을 형성함.

기이성 ② 환상계의 위계질서

옥황상제의 명이 현실계의 혼인으로 이어짐. 비현실성이 **환상계의 질서**에 귀속되어 독자가 **큰 저항 없이** 수용하게 함(㉠).

기이성 ③ 이국정취

중국 천자, 화청지, 황후 책봉 등 **낯선 공간**과 권위 있는 세계가 이국정취를 형성함.

조력자와 감각적 표현

옥황상제와 **사해용왕**의 도움으로 현실계에 돌아옴. '오색 무지개', '밝은 달', '산들바람' 등 **감각적 표현**으로 환상적 장면을 구체화함.

서술자의 개입

'천신의 조화요 용왕의 신령이었다', '천고에 더욱 없는 일이었다'처럼 서술자가 **평가적 논평**을 덧붙이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나타남.

작품 비교 금령전 · 심청전

구분	(나) 금령전	(다) 심청전
갈래/시기	설화의 흔적이 남은 전기 소설(영웅 소설)	현실적 요소를 확대한 판소리계 소설
기이성(비현실적 요소)	사물의 주체적 의지, 요귀의 변신, 구름 속 목소리 등 비현실성 극대화	꽃송이에 담긴 재생, 용궁 시녀 등 환상계의 질서에 귀속된 비현실성
초월적 존재의 개입	근거가 드러나지 않은 구름 속 목소리가 해룡을 이끎([A])	옥황상제 → 사해용왕의 위계 속 명령으로 현실계 귀환([B])
극적 전개	위험에서 평온으로: 금령 희생 → 요귀 처치 → 공주 구출	죽음에서 재생으로, 가난에서 부귀로: 투신 → 귀환 → 황후 책봉
공통점	**인물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함 ; 감각적 표현으로 환상적 상황을 드러냄 ; 중국을 배경으로 한 이국정취**	